

제주 방언의 모음 조화 연구*

고 동 호**

- 차례 -

- | | |
|----------------|------------------|
| 1. 서론 | 3. 형태소 경계 |
| 2. 형태소 내부 | 3.1. 파생 |
| 2.1. 'ㅈ'류 모음 뒤 | 3.2. 활용 |
| 2.2. 'ㄱ'류 모음 뒤 | 3.3 모음 변화와 모음 조화 |
| 2.3. 'ㄴ' 모음 뒤 | 4. 결론 |

1. 서론

모음 조화 현상은 국어 연구의 초창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특히 후기 중세 국어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 업적이 쌓여 왔다.¹⁾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서

언 어 학 제 21 호 (1997. 12. 30), 한국언어학회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6년도 박사후 연수 과정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 1) 세계의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유형에 대해서는 Aoki (1968), Vago (ed.) (1980:vi-xiii), Hulst and Weijer (1995) 등에서 이루어졌다. 외국어의 모음 조화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성백인(1959), 성백인(1968), 김주원(1988a, 1989), 송향근(1993), 정도상(1996)등 참고. 후기 중세국어 모음 조화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모음 조화의 유형이 모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① 구개적 조화: 김완진(1963)
- ② 수평적 조화: 허용(1985)
- ③ 사선적 조화: Hayata(1975), 김완진(1978), 박종희(1983)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굴절에서 어간과 어미의 조화는 설축(ㄹ, ㅈ, ㅊ)과 설소축(ㄴ, ㅅ, ㅌ)의 두 계열로 나누어진다.

둘째, 문법 형태소의 이형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문법 형태소의 제1음절의 모음에만 모음 조화가 적용된다.

셋째, 어간의 발음 'l'와 'j'는 모음 조화에 대해 불투명(opaque)하다.

넷째, 모음 조화의 예외는 생성 과정에서의 예외와 붕괴 과정에서의 예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현대 방언의 모음조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로는 월성 방언에 대한 최명옥(1982:39-51), 경북 방언에 대한 최명옥(1992, 1993), 함북 육진 방언에 대한 곽충구(1994:247-253), 제주 방언에 대한 정승철(1988, 1995:103-131)을 들 수 있다.²⁾ 이들 연구에 따르면,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전 시기에 모음조화 상의 부류를 바꾸는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형태소 경계에서 파생접사는 모음조화를 따르지만, 활용어미 '-아/어'는 월성 방언 및 경북 방언에서는 음절구조와 음절 수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향가에서 모음조화를 보이지 않는 예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방언에서는 이 형태소가 이전 시기에 모음조화를 물렸다. 그에 반해, 제주 방언에서는 어간 모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어간의 음절 수, 어간말 음절의 구조에 따라 '-아/어'가 달리 실현되지만 이전 시기에는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제주 방언이 경험한 모음 조화의 양상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³⁾

④ 설근 조화: 김주원(1988b, 1992), 김차균(1995)

2) 부사형 어미 '-아/어'의 실현 양상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강릉 방언을 다룬 이익섭(1972), 서남 경남 방언을 다룬 최명옥(1976), 월성 방언을 다룬 최명옥(1982:102-105), 고흥 방언을 다룬 배주채(1991), 함북 육진 방언을 다룬 곽충구(1994:107-121)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해서 어간말 음절의 구조, 어간말 자음, 어간말 음절의 모음,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서 각 개별 방언에서 '-아/어'는 달리 실현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아/어'의 실현 양상을 기준으로 소강춘(1989)에서는 전북 방언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최명옥(1992)에서는 경북 방언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3) 국어의 모음 조화에 대하여 지금까지 주로 생성음운론적 시각에서 공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를 다룬 이병근(1976)에서 이미 모음 조화에 관여되는 '어/아'가 모음 조화를 지배하는 모음 부류들과 자연 부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모음 조화 규칙은 동화 규칙이 아니라 자질 변경 규칙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언급은 형태소 내부이든 형태소 경계이든 현

제주 방언이 경험한 음운 변화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정승철(1995)은 다양한 제주 방언 자료들을 후기 중세국어 문헌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제주 방언의 모음 조화가 경험한 통시적 사실을 잘 밝혀 주고 있다. 그러나, 언어 사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자료를 확대하고 자료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함으로써 항상 수정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모음 조화와 관련된 자료를 더욱 확대하여 정승철(1995)에서 밝혀진 음운 변화 과정을 적용하면서, 아울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음운 변화 과정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음운 변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국어의 모음조화는 어간 즉 형태소 내부와, 접미사 즉 형태소 경계를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기문(1971a)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 둘을 분리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형태소 내부의 모음 연결들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나누는 다음, 파생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 조화의 경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어휘 형태소끼리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모음 변화를 모음 조화와 관련시켜 살펴본다. 그러나, 형태소 경계의 존재 여부는 어원적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태소 경계를 부여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제주 방언형은 1995년 7월 15일~17일 사이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에 거주하는 고행선 님(1918년생)과, 1997년 1월 5일~7일, 5월 10일~13일, 8월 29일~31일까지 동 하귀1리에 거주하는 고운일 님(1933년생)이 제공해 주었다.⁴⁾ 고행선 님의 자료는 IPA로, 고운일 님의 자료는 한글로 음운 전사하여 구별한다. 또한 현평효(1962)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언형 앞에 ㉠을 붙여 구별한다. 문헌형의 출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기로 한다.⁵⁾

2. 형태소 내부

제주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이 연결되는 유형은 모두 288개인데, 편의상 이를 'ㄴ'류 모음으로 시작되는 유형과 'ㄹ'류 모음으로 시작되는 유형, 그리고 'ㄷ'류 모음으로 시작되는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⁶⁾

대 제주 방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4) 고행선 님의 자료는 모음 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음라우트를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3.1.에서만 제시된다. 한편, 제주 방언의 지역적 변이 양상을 알아 보기 위한 조사도 실시했으나, 의미 있는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 5) 주로 한글학회(1991)를 참조했으며, 약어도 여기에 따랐다.

2.1. 'ㄷ'류 모음 뒤

여기에서의 'ㄷ'류 모음에는 흔히 양성 모음으로 규정되어 왔던 'ㅏ, ㅑ, ㅓ'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ㅑ[aj]'에서 단모음으로 바뀐 'ㅑ[e]', 그리고 이 모음들을 성절음으로 갖는 '나, 내; ㄴ, ㄷ, ㅌ; ㅑ'이 포함된다.

2.1.1. 'ㄷ'류 모음의 연결

먼저, 'ㄷ'류 모음들끼리만 연결되는 예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음들은 훈민정음 식으로는 설블축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예들은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세 개 미만의 예가 나타날 때에는 모두 제시하지만, 세 개 이상의 예가 나타날 때에는 세 개만 제시한다.

- (1) a. 가달 "다리(脚)", 바당 "바다", 아당-하-다 "아침하다"
 - b. 달가다-달가다 "달가다달가다"
 - c. 단초 "단추", 아흙 "아흙", 발-자국 "발자국"
 - d. 다보록-하-다 "다보록하다"
 - e. 다물 "屋叢"
 - (2) a. 대초 "대추", 멩퐁-멩퐁 "멩퐁멩퐁"
 - b. 새옹 "새옹"
 - (3) a. 고달 "갓(鷄冠)", 도막 "도막", 송장 "송장(屍)"
 - b. 도랑 "地境"
 - c. 물골 "물골", 오로 "두더지", 모롱 "모롱이"
-
- 6) 이 용어는 종래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등의 용어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그 대신 a류 모음과 e류 모음으로 구분한 김주원(1989)에서 따온 것이다.
- 7) 제주 방언의 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정승철 1995: 61, IPA 기호는 필자).

l/i/	-/i/	ㅌ/u/		ㅍ/ju/	ㅑ/wi/
ㅑ/e/	ㅑ/e/	ㅑ/o/	ㅑ/je/	ㅑ/je/	ㅑ/je/
ㅑ/ε/	ㅑ/a/	-/ɔ/	ㅑ/je/	ㅑ/je/	ㅑ/je/
	<단모음>		<ㄱ-계 이중 모음>		<w-계 이중 모음>

ㅑ/e/는 형태소 경계에서는 'ㄷ'류 모음과 동일한 조화를 보인다. 3.2.2 참고. 한편, 이중 모음 'ㅑ, ㅑ'는 제1음절에서 원칙적으로 현대 제주 방언에서 각각 'ㅑ[e]', 'ㅑ[we]'로 대응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e류 모음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e류 모음에서 다룬다. 제주 방언의 'ㅑ' > ㅑ' 변화는 현평효(1964), 정승철(1995: 77-96) 등에서 언급되었다.

- d. 조르륵 “조르륵”, 호르륵 “호르륵”
- e. 소악-소악 “송당송당”
- f. 도옥 “고둥”, 고요-ㅎ-다 “고요하다”, 소용-이 “궁글막대”
- g. 오요요 “오요오”
- h. 모뿔 “매뿔”
- (4) a. 외삭-외삭 “아삭아삭”, 외삭-파삭 “사기그릇 따위를 잘게 부수는 소리”, 활짝 “활짝”
- b. 화다다 “화다다”
- c. 락락 “락락”, 팔팔 “팔팔”, 악악-ㅎ-다 “잠잠하다”
- (5) a. 불락 “불락”, 스망 “사망”, 하나 “하나”
- b. 즌냥-ㅎ-다 “아껴 간직하다”
- c. 가로 “가로”, 느룻 “서늘한 추위”, 즌똥 “자똥”
- d. 굴팡-ㅎ-다 “가지런하다”
- e. 느뿔 “나뿔”, 즌뿔 “자뿔(柄)”, 스뿔 “사뿔”
- f. koljop- “가렵다”, moljop- “마렵다”⁸⁾
- (6) a. 으라-가지 “여러 가지”
- b. 으둑 “여덟”, 으섯 “여섯”
- c. jokjak-ho- “매우 약다”

(1)~(6)은 ‘ㅈ’ 뒤에 ‘ㄹ’류 모음만 연결되는 예로 각각 ‘ㅈ, ㅈ, ㅈ, ㅈ, ㅈ, ㅈ’로 제1음절의 모음이 시작되는 유형이다. (1)은 ‘ㅈㅈ, ㅈㅈㅈ, ㅈㅈ, ㅈㅈㅈ, ㅈㅈ, ㅈㅈㅈ, 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 ㅈㅈㅈ, ㅈㅈㅈㅈ’의 연결을 보여준다. (1)c의 ‘단초, 발자국’, (2)a의 ‘대초’ 등은 현대 중부 방언과 비교해 볼 때, ‘ㅈ>ㅈ’ 변화를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⁹⁾ 그리고, (3)h의 ‘모뿔’은 후기 중세문헌형 ‘모뿔’과 비교해 볼 때, 제2음절의 모음이 기원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2.1.2. ‘ㄹ’류 모음의 연결

다음은 ‘ㄹ’류 모음 뒤에 일반적으로 중립 모음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ㅣ’가 연

8) 이하에서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음절은 IPA로 표기한다.

9) 정승철(1995: 107-108)에 따르면, 제주 방언의 비어두 음절에서의 ‘ㅈ>ㅈ’ 변화는 주로 개음절 어간의 말음이 ‘ㄹ’인 경우와 선행 음절의 모음이 ‘ㄹ’이 아니며 공명자음이 후행하는 경우에 일어났다.

결되는 예들이다. 이러한 유형은 다시 크게 ① 'ㄷ'류 모음 뒤에 'ㄷ'류 모음들과 'ㄴ'이 연결되는 경우, ② 'ㄷ'류 모음 뒤에 'ㄷ'류 모음이 연결되고 다시 'ㄴ'이 연결되는 경우, ③ 'ㄷ'류 모음 'ㄷ'류 모음, 그리고 'ㄴ'이 혼합된 예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번째의 예부터 제시한다.

- (7) a. ㄹ라지 “가라지”, 사다리 “사닥다리”, 맥-사가리 “脈의 비어”
 b. 강들わり “조의 일종”
 c. 가오리 “가오리”, 까도리 “까투리”, 사오기 “벗나무”
 d. 가시 “가시”, 각지 “각지”, 갈기 “갈기”
 e. 아지망 “아지망”, 아기작-아기작 “아기작아기작”
 f. 아이고 “아이고”
 g. 가시리 “풀가사리”, 맛시리 “조(粟)의 일종”, 바지지 “바지지”
- (8) 나위 “나위”, 사위 “사위(孀)”, 자귀 “자귀”
- (9) a. 대바지 “작은 둥이”
 b. 땡기 “땡기”, 새끼 “새끼(雛)”, 쟁기 “쟁기”
 c. 에이리 “매룡이(물고기 종류)”, 쟁기리-다 “겨누어 보다”
- (10) 새위 “새우”
- (11) 야기-부리-다 “야기부리다”, 야리-다 “야리다”
- (12) a. 고사리 “고사리”, 초라니 “초라니”, 흥아기 “노동요”
 b. 고고리 “이삭”, 도고리 “함지박”, 족도리 “족두리(<족도리)”
 c. 춤-소왕이 “영경귀”, 흑-소왕이 “조쟁이”
 d. 고질 “줄기나 깎지”, 고치 “고치”, 동지 “갓 나온 줄기”
 e. 모지리-다 “꿂다”
- (13) 독다귀 “도마뱀”
- (14) a. 와리-다 “초조해 하다”
 b. 와지직 “데었을 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 (15) a. 왜재기-다 “왜자기다”
 b. 썩이 “썩이”
- (16) a. ㄷ사리 “머슴애”, 줌방이 “잠방이”, 츠라리 “차라리”
 b. ㄷ-존동이 “ㄷ잔동이”
 c. ㄷ리 “다리(橋)”, 스끼 “새끼(雛)”, ㅍ리 “파리”, 스이 “사이(情)”
 d. ㅂ시락 “보스락”, ㅂ치락 “화를 내는 모양”
 e. ㅅ시록-ㅎ-다 “구석지고 조용하다”
 f. ㄹ리치-다 “가리키다”, ㄹ리치-다 “가르치다(<ㄹ리치-)

(17) a. 술귀 “살구(杏)”, 좃귀 “젓발”

b. 츠마귀 “얼무”

(7)은 ‘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8)은 ‘ㅏㅏㅏ’, (9)는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10)은 ‘ㅏㅏㅏㅏ’, (11)은 ‘ㅏㅏㅏ’, (12)는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13)은 ‘ㅏㅏㅏㅏㅏ’, (14)는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15)는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16)은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 (17)은 ‘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ㅏㅏ’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ㅏ’를 중립 모음이라고 한다면 현대 제주 방언형만으로는 위의 예들도 모음 조화를 지키는 예들이다. 그런데, 후기 중세문헌형과 비교해 보면, 위의 예들 중에서 모음 변화를 경험한 것들이 있다. 가령, (7)d의 ‘가시’는 ‘가시’와 비교해 보면 제2 음절 이하에서의 ‘ㅏ>(-)>ㅏ’ 변화(이승녕 1957:3-4)를 경험한 것이고, (8)의 ‘사위, 자귀’는 문헌형 ‘사희, 자괴’와 비교해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ㅏ>ㅏ’ 변화와 ‘귀[uj]>[wi]’ 변화(정승철 1995: 85)를 경험한 것이다.¹⁰⁾ (9)b의 ‘새끼’, ‘쟁기’, (15)의 ‘쟁이’, ‘왜재기다’의 [e]는 대응하는 후기 중세문헌형 ‘삿기, 잠개, 팡이’나 현대 중부 방언형 ‘왜재기다’와 비교하여 음라우트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a의 ‘술귀’는 ‘술고’와 비교해서 ‘ㅏ>ㅏ’ 변화 뒤에 ‘ㅏ’가 첨가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8)의 ‘나위’, (13)의 ‘독다귀’ (17)의 ‘좃귀’, ‘츠마귀’ 등은 대응하는 문헌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중에서 ‘좃귀’는 그 의미로 보아 형태소 경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들은 제주 방언의 ‘위’가 이중 모음 [uj]에 소급되는 것이라면 모음 조화의 예외이다. 더구나, (8)의 유형에 속하는 제주 방언형의 ‘방귀’는 후기 중세 문헌형 ‘방귀’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 ‘방귀’의 어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예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18) a. 바리게 “타작시 둘러치는 도구”

b. 감비역 “감부기(<감보기)”

(19) 야가얌-ㅎ-다 “얼어먹으려고 애쓰다”

(20) a. 비지런-ㅎ-다 “바지런하다”

b. 혼진네 “줄곧”

(18)~(20)은 ‘ㅏ’ 모음이 연결되고 뒤에 다시 ‘ㅏ’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10) 현대 제주 방언의 이중 모음 [uj], [we]가 단모음 [ø, y]의 단계를 거쳤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18)은 '卜-|-ㅁ, 卜-|-ㅂ', (19)는 '卜-|-ㅂ', (20)은 'ㅁ-|-ㅁ, ㅁ-|-ㅂ'의 모음 연결을 보여준다. 'ㅣ'를 불투명한 중립 모음이라고 한다면¹¹⁾ 현대 제주 방언형만으로는 위의 예들도 모음 조화를 지키는 예들이다.

2.1.3. 'ㅣ'류 모음의 연결

여기에서는 'ㅣ'류 모음 뒤에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을 살펴본다. 형태소 내부에 모음 조화가 존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도 설명이 되어야 하는 예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다시 'ㅣ'류 모음으로 끝나는 예들과, 'ㅣ'류 모음으로 끝나는 예들로 나누어진다. 앞 부류에 속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21) a. 마망제기, “벌래의 일종”
 b. 악다구리 “악다구니”
 c. 가제미 “가자미”, 각매기, ㉠각마기 “각지”, 작대기 “작대기”
 d. 반두어리 “후박나무”
 e. 아우생이, ㉠아오생이 “아귀”, 자부래기 “나부맹이”
 f. 바구리 “바구니”, 밥주리 “잠자리”, 다울리-다 “쫓아내다”
 g. 다스리-다 “다스리다”
- (22) 간절귀, ㉠간잘귀 “개동참외”
- (23) a. 놀래미 “노래기”, 죽제비 “죽제비”, 도چه비 “도چه비”
 b. 오고생이 “그대로”
 c. 도꾸마리 “도투마리”
 d. 공중이 “귀뚜라미”
 e. 도스리-다 “남의 말을 전하다”, 웅크리-다 “웅크리다”
- (24) a. ㄱ래수기 “전나무”
 b. 굴계비 “개구리”, 봉맹이 “콩바구미”, 좁새기 “떡(茅)로 만든 우비”
 c. 물몬주리 “말미잘”
 d. 굴루기 “쌍둥이”, 스투리 “사투리”, 몬주끼-다 “미적미적하다”
 e. 츠켁이 “도롱이”

11) Hulst and Weijer (1995)는 중립 모음에 선행하는 모음이 후행하는 접사의 모음을 동화시킬 때 이를 투명(transparent) 모음, 조화의 짝을 가지지 않으며 선행하는 모음이 후행하는 모음을 동화시키지 않을 때 이를 불투명(opaque) 모음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다.

(21)~(24)는 ‘ㄱ’류 모음이 연결되고 ‘ㅣ’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각각 (21)은 ‘ㅏ-ㅏㅏㅣ’, ‘ㅏㅏㅏㅣ’, ‘ㅏㅏㅣ’, ‘ㅏㅏ-ㅏㅣ’, ‘ㅏㅏ-ㅏㅣ’, ‘ㅏㅏㅣ’, ‘ㅏ-ㅣ’, (22)는 ‘ㅏ-ㅏㅣ’, (23)은 ‘ㅏ-ㅏㅣ’, ‘ㅏ-ㅏ-ㅏㅣ’, ‘ㅏ-ㅏㅏㅣ’, ‘ㅏ-ㅏㅣ’, ‘ㅏ-ㅏ-ㅣ’, (24)는 ‘ㅏ-ㅏㅏㅏㅣ’, ‘ㅏ-ㅏㅣ’, ‘ㅏ-ㅏㅏㅏㅣ’, ‘ㅏ-ㅏㅏㅣ’, ‘ㅏ-ㅏ-ㅣ’의 연결을 보인다. 여기에서 ‘ㅣ’가 중립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ㅣ’ 앞에서 ‘ㄱ’류 모음과 ‘ㄱ’류 모음의 연결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제주 방언에서 모음 조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을 보이는 ‘ㄱ’류 모음은 ‘ㄱ, ㅏ, ㅏ, ㅣ, ㅏ’이다. 정승철(1995)에서 제주 방언에서 제2음절 이하에서의 ‘ㄱ, ㅏ, ㅏ’ 중 일부는 모음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즉, 비어두 음절에서의 ‘ㄱ>ㅏ’ 변화(p. 28), ‘ㅏ>ㅏ’ 변화(p. 107~109), ‘ㅏ>ㅏ’ 변화(p. 42)등이 그것이다. 위의 예들 중에서 대응되는 문헌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 즉, (21)c의 ‘가재미’는 문헌형 ‘가잠이’에, (23)f의 ‘도체비’는 문헌형 ‘돛가비’에¹²⁾, (21)f의 ‘바구리’는 문헌형 ‘바고니’에, (23)c의 ‘도꾸마리’는 문헌형 ‘도토타리’에, (21)g의 ‘다스리다’는 문헌형 ‘다스리다’에 대응된다.

나머지 예들은 현재로서는 모음 조화의 예외라고 간주된다. 물론, (23)b의 ‘오고생이’와 (24)d의 ‘굴루기’, (24)e의 ‘츄쟁이’는 내부에 형태소 경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3)a의 ‘족제비’는 문헌형 ‘족저비’와 대응되어 구개음 뒤에서의 j 탈락(정승철 1995: 69) 및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예들이 모음 조화의 예외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경계를 포함하고 있거나, 나머지 예들에서 나타나는 ‘ㄱ’류 모음이 음운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ㄱ’류 모음 뒤에 ‘ㄱ’류 모음만 연결되는 예들이다. (25)~(32)에 제시하는 이 예들 역시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에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ㄱ’류 모음들이 연결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먼저, 제1음절의 모음이 ‘ㅏ’인 예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25) a. 다간죽-냥 “에덕나무”, 하가수-ㅎ-다 “거침없다”
- b. 다섯 “다섯”, 아취 “아침”, 장식-ㅎ-다 “공공대다”
- c. 가매 “가마(旋毛)”, 간새 “개으름”, 가재 “가재”
- d. 아여 “아야”, 차경 “연자매에서 마소에 줄을 매어 끌도록 된 나무”

12) ‘가재미’는 ‘ㅏ>ㅏ’의 음라우트를 경험했고, ‘도체비’는 ‘ㅏ>ㅏ’에서의 ‘ㅏ’ 약화 및 음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이다. 제주 방언의 음라우트에 대해서는 정승철(1995: 54-57), 고동호(1995b), ‘ㅏ’ 약화 현상에 대해서는 김성규(1996), 고동호(1996) 참조.

- e. 가족 “가족”, 자굴 “자귀풀”, 따물-다 “채촉하다”
- f. 싸무랍-다 “사납다”, 하우스-하우스작 “허우적허우적”
- g. 나분데 “채 익지 않은 이삭”, 자부세 “모양”, 나무래-다 “나무라다”
- h. 하우염 “하품”
- i. 자월 “나무, 덩굴 따위가 무성한 곳”
- j. 가슴 “가슴”, 사들 “그물의 일종”, 가끄-다 “깎다”¹³⁾
- k. 까드랍-다 “까다롭다”, 할으방 “할아버지”, 가드락-가드락 “가드락가드락”
- l. 나그네 “나그네”, 당그네 “고무래”
- m. 나스승-ㅎ-다 “짧고 가늘다”, 사르르 “사르르”, 자르르 “자르르”

(25)는 각각 'ㅏㅏㅏ, ㅏㅏ, ㅏㅏ, ㅏㅏ, 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ㅏㅏㅏ'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이 모음 연결에서 'ㄱ'류 모음은 'ㅏ, ㅏ, ㅏ, ㅏ, ㅏ, ㅏ'이다.

먼저, (25)b의 '다섯'은 문헌형의 '다섯', '아침'은 문헌형의 '아침'에 대응되므로,¹⁴⁾ 이들 예에서의 'ㅏ'는 비어두음절에서의 'ㅏ>ㅏ' 변화(정승철 1995: 48)를 경험한 것이다. (25)c의 '가매'는 문헌형의 '가마', '가제'는 문헌형의 '가재', (25)l의 '나그네'는 문헌형의 '나그네'에 대응되므로, 이들 예에서의 'ㅏ'는 비어두음절에서의 'ㅏ>ㅏ' 변화(정승철 1995: 28)를 경험한 것이다. (25)g의 '나무래다'의 'ㅏ'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헌형의 '나무라다'에 대응되므로, 뒤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삽입되는 과도음 j이 어간의 일부로 인식된 후에 'ㅏ'의 단모음화를 거쳐, 'ㅏ>ㅏ'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나무)라+아→라야→래(+아/어)래'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25)e의 '가족'은 문헌형의 '가족'에, (25)h의 '하우염'은 문헌형의 '하외염'에 대응되므로, 'ㅏ'가 비어두음절에서의 'ㅏ>ㅏ' 변화(정승철 1995: 107~108)를 경험한 것이다. '하우염'의 'ㅏ'는 이 변화를 경험한 후에 모음 조화에 따라 'ㅏ'에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¹⁵⁾ (25)g의 '나무래다'는 문헌형의 '나무라'에, (25)j의 '가슴'은 문헌형의 '가슴'에, (25)l의 '나그네'는 문헌형의 '나그네'에 대응되므로, 이들 예에서의 'ㅏ'는 비어두음절에서의 'ㅏ>ㅏ'의

13) 후기 중세국어 문헌형에서 유기음이나 자유군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은 제주 방언에서 규칙적으로 'ㅏ'로 끝나는 개음절로 실현되는데, 정승철(1995: 181, 194)에서는 제주 방언의 'ㅏ'가 후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14) '아침'의 어말자음 'ㅏ'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저녁(夕)'의 어말자음에 유추된 것이 아닐까 한다.

15) 'ㅏ'가 대립의 짝인 'ㅏ'로 바뀌지 않은 것은 그 앞에 'ㅏ'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25)f의 ‘허우작하우작’은 ‘허우작-허우작’에서 ‘ㅏ ㅓ’의 모음교체(정승철 1995: 109)를 경험한 것이다.¹⁶⁾ (25)e의 ‘따물다’와 (25)f의 ‘당그네’는 ‘물-(逐)’과 ‘근-(引)’과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태소 경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5)에서 나머지 예들은 아직 모음 조화의 예외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예들이다.

(26) a. 재열 “매미”

b. 대죽 “수수”, 새움-ㅎ-다 “쌈하다”

c. 대음-ㅎ-다, “명심하지 않다”

d. 덩그랑-덩그랑 “덩그랑덩그랑”

e. 덩그르르 “쇠그릇이 굴러가면서 나는 소리”

(27) a. 압전-ㅎ-다 “압전하다”

b. 알래 “소가 혀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는 짓”, 뒷-야게 “뒷덜미”

c. 양념 “양념”

d. 야그라진-놈 “이죽거리는 사람”, 야프-다 “얕다”, 야드락-지-다 “보통 보다 굵다”

(26), (27)은 각각 ‘ㅏ-ㅓ, ㅏ-ㅓ, ㅏ-ㅓ, ㅏ-ㅓ, ㅏ-ㅓ’, ‘ㅏ-ㅓ, ㅏ-ㅓ, ㅏ-ㅓ, ㅏ-ㅓ’의 모음 연결을 보이는 예들인데, 이들 예에서 나타나는 ‘ㅏ/ㅓ류 모음인 ㅏ, ㅓ, ㅓ’는 아직 그 변화 과정을 추정할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28) a. 동전 “동정”, 보선 “버선”, 오닐 “오늘”

b. 고개, “고개”, 고세 “언 서리”, 물맹-ㅎ-다 “용렬하다”

c. 고계곡 “꼬끼오”

d. 복송계 “복송아”

e. 손수 “손수”

f. 보유스름-ㅎ-다 “보유스름하다”

g. 보름 “보름”, 소름 “소름”, 고르-다 “고르다”

h. 오들랑-ㅎ-다 “강층 뛰어오르다”, 음틀락-ㅎ-다 “음푹한 부분이 등글다”

i. 고들개 “깡거리”, 고들배 “자꾸”

16) ‘허우작하우작’은 현명효(1962)의 ‘허위여가다’와 ‘허위여들다’를 고려할 때, “허위- (서들다)에서 파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j. 포르릉 “포르르”

(29) a. 화근 “화근”

b. 왈그랑-달그랑 “왈강달강”

c. 와드득-와드득 “아드득아드득”

(30) a. 왜우르-다 “소리를 지르다”

b. 앵그랑-댕그랑 “앵그랑댕그랑”

(28)~(30)은 제1음절의 모음이 ‘ㄱ, 나, 내’인 예로 (28)이 ‘ㄱ-ㄱ, 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 (29)가 ‘나-ㄱ, 나-ㄱ, 나-ㄱ-ㄱ’, (30)이 ‘내-ㄱ-ㄱ, 내-ㄱ-ㄱ’의 모음 연결을 보인다. 이들 예에서 나타나는 ‘ㄱ’류 모음은 ‘ㄱ, ㄱ, ㄱ, ㄱ, ㄱ’이다. 이 ‘ㄱ’류 모음을 포함하는 예들 중에서 (28)a의 ‘보선’은 문헌형의 ‘보선’에 대응되므로 ‘ㄱ’가 ‘*ㅅ’에 소급되며,¹⁷⁾ 구개음 뒤에서의 j탈락 및 비어두음절에서의 ‘. > ㅅ’ 변화(정승철 1995: 48, 69)가 일어난 것이다. 즉 후기 중세문헌형은 ‘*posjon > posjan’의 변화를 경험했고, 제주 방언형은 ‘posjon > poson > posan’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28)a에서 문헌형의 ‘오늘’에 대응되는 ‘오닐’의 ‘ㄱ’은 비어두음절에서의 ‘. > ㅅ’(정승철 1995: 48)를 경험한 것이다. (28)b의 ‘고개’는 문헌형의 ‘고개’와 대응되므로 비어두음절에서의 ‘ㅃ > ㅍ’ 변화(정승철 1995: 28)를 경험한 것이다. (28)c의 ‘고개곡’은 음상이나 의미로 보아 일본어의 ‘こけこっこ’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서로 차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문헌형의 ‘복성화’와 대응되는 (28)d의 ‘복송개’의 제2음절의 모음은 ‘*ㅅ’에서 구개음 뒤에서의 j탈락(정승철: 69)과 모음 조화에 따른 동화를 경험한 것이고,¹⁹⁾ 제3음절의 모음은 접미사 ‘ㅣ’의 첨가와 w탈락 및 ‘ㅃ > ㅍ’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²⁰⁾ (28)e의 ‘손수’는 문헌형의 ‘손소’와 대응되므로 비어두음절에서의 ‘ㄱ > ㅅ’ 변화(정승철 1995: 107-108)를 경험한 것이고, (28)g의 ‘고르다’는 문헌형의 ‘고르’와 대응되므로 비어두음절에서의 ‘. > ㅅ’ 변화(정승철 1995: 42)를 경험한 것이다. 이 예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들은 대응되는 문헌형이 발견되지 않는다.²¹⁾

17) 양순음 뒤를 제외한 어두음절에서의 ‘*ㅅ’의 재구는 이기문(1977) 참조.

18) 제주 방언에서의 일본어 차용에 대해서는 김완진(1957) 참조.

19)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제주 방언은 모음 조화에 따른 모음 동화가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 동화는 3.3. 참조.

20) w탈락의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울러, 정승철(1995: 77)에서는 w탈락이 양순음 뒤와 일부 어두음절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1) (28)g의 ‘보름’은 문헌형의 ‘보름’과 대응되는데, 산발적인 ‘ㄱ > ㅅ’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 (31) a. 먼저, “먼저”, 불씨 “벌씨”, 벌절 “아이들의 손장난”
 b. 밀레 “형진”, 몽케-다 “몽기적거리다”, 몰켓-낭 “상여 채구의 일종”
 c. ㄱ물-ㄱ물 “가물가물”, ㄱ물-다 “가물다”, 드투-다 “다투다”
 d. 하물며 “하물며”
 e. 함부로 “함부로”
 f. 돈주긋-돈주긋 “몽그작몽그작”
 g. 굴뻑-다 “움직이다”
 h. ㄱ술 “가을”, 스킨다 “숙다”, 즈를 “겨를”
 i. ㄱ스락 “가서랭이”, ㅂ스락-ㅂ스락 “바스락바스락”, 으슬랑-으슬랑 “아슬랑아슬랑”
 j. 스킨르 “사르르”, ㅂ드득-ㅂ드득 “바드득바드득”, 즈르록-ㅎ-다 “피륙이 끊고 찹찹하다”
- (32) a. 으물 “여물”, 으붓-으붓 “여짓여짓”
 b. 으부룩-스부룩 “이리저리”
 c. 으름 “여름(夏)”, 으습 (“짐승의)여섯 살”, 으끄-다 “엮다”

(31), (32)는 제1음절의 모음이 ‘ㄱ’, ‘ㅇ’인 예로, 각각 ‘-ㄱ-, -ㄱ-, -ㄱ-, -ㄱ-’, ‘-ㅂ-, -ㅂ-, -ㅂ-, -ㅂ-’, ‘-ㄱ-, -ㄱ-, -ㄱ-, -ㄱ-’의 모음 연결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ㄱ’류 모음은 ‘ㄱ, ㅅ, ㅈ, ㅊ, ㅌ, ㅍ’이다. (31)a의 ‘먼저’, ‘벌씨’는 문헌형의 ‘몬저’, ‘벌씨’와 대응되므로, (28)a의 ‘보선’과 마찬가지로 제2음절의 모음은 ‘*ㅈ’에서 j 탈락 및 ‘>ㅈ’ 변화(정승철 1995: 69, 48)를 경험한 것이다.²²⁾ 문헌형의 ‘ㄱ물-, 하물며, ㄱ술, 겨를(를-), ㄱ스라기, 너름’에 대응하는 (31)c의 ‘ㄱ물다’, (31)d의 ‘하물며’, (31)h의 ‘ㄱ술’, ‘즈를’, (31)i의 ‘ㄱ스락’, ‘으름’의 제2음절의 모음은 ‘>ㅈ’ 변화(정승철 1995:41)를 경험한 것인데, ‘ㄱ물다’와 ‘하물며’는 다시 양순음 뒤에서의 ‘>ㅈ’ 변화(정승철 1995: 97)를 경험한 것이다. (31)e의 ‘함부로’는 문헌형의 ‘함보로’에 대응되므로, 비어두음절에서의 ‘>ㅈ’ 변화(정승철 1995: 107-108)를 경험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예들은 대응되는 문헌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2.2. ‘ㄱ’류 모음 뒤

여기에서 말하는 ‘ㄱ’류 모음은 흔히 양성 모음으로 분류되어 왔던 단모음 ‘ㄱ, ㅅ, ㅈ’와 이중모음 ‘ㅅ, ㅈ’, 그리고 이중모음이나 삼중모음에서 변한 ‘ㅅ, ㅈ, ㅉ’

22) ‘먼저’의 제1음절 모음은 어두의 ‘>ㅈ’ 변화(정승철 1995: 38)를 경험한 것이다.

등이다.

2.2.1. 'ㄱ'류 모음의 연결

먼저, 'ㄱ'류 모음 뒤에 다시 'ㄱ'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 예들은 뒤에 연결되는 'ㄱ'류 모음이 'ㄱ'류 모음에서 변한 것이 아닌 한, 모음 조화를 지켜 온 예들이다.

- (33) a. 걱정 “걱정”, 버섯 “버섯”, 선선-ᄃ-다 “정도가 지나치다”
 b. 어벌쟁-ᄃ-다 “어벌쟁하다”, 어정쟁-ᄃ-다 “어정쟁하다”
 c. 멩에 “멍에(<머에)”, 어깨 “어깨(<엇게)”, 번개 “번개(<번개)”
 d. 버럭 “버럭(霸)”, 어엿 “엿”, 어렵-다 “어렵다(<어렵-)”
 e. 거렁청-이 “아무 근거 없이”
 f. 거울 “거울”, 너출 “넉출(<너출)”, 얼굴 “얼굴(<얼굴)”
 g. 엄부렁-ᄃ-다 “엄범부렁하다”
 h. 거수에 “거위(鵞)”, 범블래 “진득찰(草)”
 i. 어수룩-ᄃ-다 “어수룩하다”
 j. 머플 “밭에 있는 자갈(cf. 머플-)”, 버즘 “버짐(<버즘)”, 더끄-다 “엷다”
 k. 덩드렁-마께 “짚방망이”
 l. 서으래 “씨래(<서흐래)”

(33)은 제1음절의 모음이 'ㄱ'이고, 뒤에 'ㄱ'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각각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 'ㄱ-ㄱ'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33)a의 '걱정'은 문헌형의 '걱덩'에 대응되므로, 'ㄱ'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구개음 뒤에서의 j탈락(정승철 1995: 69)이 일어난 것이고, '버섯'은 문헌형의 '버섯'에 대응되므로, 제2음절의 모음은 제1음절의 모음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f의 '거울'은 문헌형 '거우루'에 대응되므로,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제3음절의 모음이 탈락한 것이다. 한편, (33)h의 '거수에'는 문헌형의 '거위'에 대응된다. 정승철(1995:85)에서 문헌형의 '위-, 드위빠-'에 대응되는 제주 방언형 '췌-, 뽀쓰-'에 대해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중모음 [wi]를 위해 w와 i 사이에 'ㄱ'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거수에'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33)c의 '멍에, 어깨, 번개', (33)d의 '어렵-', (33)f의 '너출, 얼굴', (33)j의 '머플, 버즘', (33)l의 '서으래'는 모음 연결이 대응되는 문헌형과 동일하다.

- (34) a. 게더분-ᄃ-다 “지저분하다”
- b. 맹개 “청미래덩굴 열매”, 댜댜-ᄃ-다 “편편하다”
- c. 매역 “미역”, 배염 “뱀”, 게염-지 “개미”
- d. 메주 “매주”, 제우 “겨우”, 에우-다 “에우다(<에우-)”
- e. 댜줄래 “농사 제구의 일종”
- f. 배수름-ᄃ-다 “배뚜름하다”
- g. 게슴 “게염”, 배술 “벼술(官)”, 멩글-다 “만들다”
- h. 게으르-다 “게으르다(<게으르-)”

(34)는 제1음절의 모음이 ‘ㅈ’이고 뒤에 ‘ㄱ’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각각 ‘ㅈ-ㅈ-ㅈ, ㅈ-ㅈ, ㅈ-ㅈ, ㅈ-ㅈ, ㅈ-ㅈ-ㅈ, ㅈ-ㅈ-ㅈ, ㅈ-ㅈ, ㅈ-ㅈ, ㅈ-ㅈ-ㅈ’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34)c의 ‘게염지’는 정승철(1995: 109)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ㅈ-ㅈ’의 모음 교체에 의한 분화이다. ‘배염’은 문헌형의 ‘뱀’에 대응되는데, po\$jam>poj\$jam의 음절 경계 조정과 j>e의 단모음화를 경험한 다음 제2음절의 모음이 제1음절의 모음에 불완전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형의 ‘머욱’에 대응되는 ‘매역’도 음절 경계 조정과 불완전 동화를 겪은 것이다. (34)d의 ‘매주’와 (34)g의 ‘배술’은 문헌형의 ‘머주, 벼술’에 대응되는데, 제1음절의 모음이 순음 뒤에서의 ‘ㅈ>ㅈ’ 변화(정승철 1995:73)를 겪은 것이다. (34)d의 ‘제우’에 대응되는 문헌형은 비슷한 시기의 문헌에 ‘계요~계우’의 쌍형으로 나타나는데, 현대 중부 방언형을 고려한다면, ‘계요>계우’ 변화의 과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예의 제1음절의 모음은 이기문(1977)에서 재구된 ‘j(j)’에 소급되는 것이다. (34)g의 ‘게슴’은 문헌형의 ‘게염~게움’에 대응되는데, 이들은 ‘*게슴’에 소급되고,²³⁾ ‘게염’의 제2음절 모음이 제1음절 모음에 동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형의 ‘멩글’에 대응되는 (34)g의 ‘멩글다’의 제1, 2음절 모음들은 각각 ‘ㅈ>ㅈ, ㅈ>ㅈ’ 변화(정승철 1995: 59, 41)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34)d, h의 ‘에우다’와 ‘게으르다’는 문헌형과 동일하다.

- (35) a. 녀석 “녀석”
- b. 열무 “열무(<열무우)”, 여쭙-다 “여쭙다”

(36) 예순 “예순”

- (37) a. 구덕 “구덕(<구력)”, 부섭 “마루에 있는 아궁이(<브섭)”, 우력 “우력 불력”

23) 문헌형의 ‘ㅈ’과 제주 방언형의 ‘ㅈ’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승철(1995: 150-161), 고통호(1995a) 참조.

- b. 폰더분-ㅎ-다 “폰더분하다”
- c. 굴레 “입의 비어”, 굴매 “그림자”, 부에-나-다 “부아나다”
- d. 후련-ㅎ-다 “후련하다”
- e. 구름 “구름(<구름)”, 구물 “그물”, 부수-다 “부수다”
- f. 푸드등 “푸두등”
- g. 주물르-다 “주무르다”
- h. 수왜 “순대”
- i. 구들 “구들(<구들)”, 등글-다 “구르다(轉)”, 무끄-다 “뭉다”
- j. 부스스-ㅎ-다 “부스스하다”, 쿠르릉-쿠르릉 “쿨쿨”

(35)~(37)은 각각 제1음절의 모음이 ‘ㄷ, ㅈ, ㅊ’인 예들로, (35)는 ‘ㄷ-ㄷ, ㄷ-ㅌ’, (36)은 ‘ㄷ-ㅌ’, (37)은 ‘ㄷ-ㄷ, ㄷ-ㅌ, ㄷ-ㅈ, ㄷ-ㅊ, ㄷ-ㅌ, ㄷ-ㅌ, ㄷ-ㅌ, ㄷ-ㅌ, ㄷ-ㅌ, ㄷ-ㅌ, ㄷ-ㅌ, ㄷ-ㅌ’의 모음 연결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37)a의 ‘구덕’, (37)e의 ‘구름’, (37)i의 ‘구들’은 모음이 문헌형과 동일하다. 문헌형의 ‘얼무우’에 대응되는 (35)b의 ‘얼무’는 제3음절 모음 ‘ㅌ’가 탈락된 결과이다. 문헌형의 ‘브쉽’에 대응되는 (37)a의 ‘부쉽’은 양순음 앞에서의 ‘-ㅌ>ㅌ’ 변화(정승철 1995: 97)가 일어난 결과이다. 문헌형의 ‘그르매’에 대응되는 (37)c의 ‘굴매’도 순음 앞에서의 ‘-ㅌ>ㅌ’ 변화(정승철 1995: 97, 각주 112)가 일어나고, 제2음절의 모음이 탈락된 것이다. 문헌형의 ‘브스, 그물’에 대응되는 (37)e의 ‘부수다, 구물’은 양순음 뒤에서의 ‘-ㅌ>ㅌ’ 변화(정승철 1995: 97) 뒤에 제2음절의 모음이 제1음절의 모음에 동화된 결과이다. (35)b의 ‘어쭈다’는 문헌형의 ‘연중’에 대응되는데, ‘연똥’(훈몽-초, 상: 18), ‘연논’(번소 9: 42) 등을 고려할 때,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예이다.²⁴⁾ 문헌형의 ‘쨌뜨르’에 대응되는 (37)g의 ‘주물르다’는 제1음절의 모음이 하향 이중모음에서의 과도음 j의 탈락을 경험한 것이고, 제2음절의 모음이 앞에서 언급한 양순음 뒤 ‘-ㅌ>ㅌ’의 변화를 경험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37)c의 ‘부에’는 문헌형의 ‘부화’에 대응되어, 접미사 ‘ㅣ’ 첨가, ‘ㅎ’ 및 과도음 ‘w’ 탈락, 비어두음절 ‘ㅣ>ㅈ’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²⁵⁾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음 조화의 예외이다.

(38) 뉘우-다 “둘리다”, 쉰우-다 “소리내다(鳴)”, 쨌우-다 “죄다”

(39) 유흘 “으름”

(40) a. 호령 “수령”, 등접-다 “구수하다”, 흥성-ㅎ-다 “흥정하다(<흥경-)”

24) 제2음절의 모음이 후행하는 양순음의 영향으로 ‘ㅌ’가 되었는지, ‘ㅈ’의 탈락의 결과 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후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5) 이러한 변화 과정의 순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b. 흘레 “흘레”
- c. 굴투다 “물려다니다”
- d. 들윗 “다래끼”
- e. 등쾌, [꺾]등쾌 “한태”
- f. 그늘 “그늘(<그늘)”, 그르 “그루(<그룻)”, 능그다 “능그다(鶻)”
- g. 스트르 “스트르”, 스트롱-스트롱 “쑹쑹쑹쑹”, 으드득-으드득 “으드득
으드득”

(38)~(40)은 제1음절 모음이 각각 ‘내, π, —’인 예들로, (38)은 ‘내-ㅏ’, (39)는 ‘π-ㅏ’, (40)은 ‘—ㅏ, —ㅑ, —ㅓ, —ㅕ, —ㅑ, —ㅓ, —ㅓ-ㅓ’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먼저, (40)a의 ‘홍성-ㅎ-다’와, (40)e의 ‘그늘, 그르’는 문헌형과 모음 연결이 동일하다. 그리고, (38)의 ‘쨌우다’의 제1음절 모음은 중부 방언형과 비교할 때, ‘ㅓ>내’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2.2.2. ‘ㅣ’모음의 연결

여기에서는 ‘ㅣ’류 모음으로 시작되고 뒤에 ‘ㅣ’가 연결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립 모음 ‘ㅣ’의 성격을 고려하면, ① ‘ㅣ’가 어말 음절에 있고 그 앞의 모음 연결이 ‘ㅣ’류 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 ② ‘ㅣ’가 어중 음절에 있는 경우 ③ ‘ㅣ’가 어말 음절에 있고 그 앞의 모음이 ‘ㅣ’류 + ‘ㅣ’류로 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2.2.2.1. ‘ㅣ’류 모음 + ‘ㅣ’

먼저, ‘ㅣ’류 모음으로 시작되어 ‘ㅣ’류 모음이 연결되고, 어말음절의 모음이 ‘ㅣ’인 예들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ㅣ’가 중립 모음이라고 할 때, ‘ㅣ’류 모음이 ‘ㅣ’류 모음에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면, 이 예들도 2.2.1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모음 조화를 지키는 것들이다.

(41) 걸귀 “돼지의 일종”, 게위 “거위(鵞)”, 머귀-낭 “머귀나무(<머귀)”

(42) a. 덩어리 “덩어리”

b. 번대기 “편더기”, 정쟁이 “정강이”, 병맹이 “땡어리”

c. 허운데기 “머리의 비어”

d. 엉등이 “엉덩이”

e. 거느리-다 “지칭하다”

f. 거미 “거미”, 거짓 “거짓”, 머리 “머리(<머리. 頭)”

g. 거시기 “거시기”, 어지리-다 “어지르다”

(43) 테취 “꿀 찌꺼기”

(44) a. 해것이-즈룩 “물래 자루”

b. 배채기, 𪎗배차기 “질경이”

c. 제여기 “보무라지”

d. 객주리 “퀴치”, 맨주기 “토리”, 세우리 “부추”

e. 매느리 “머느리”

f. 델리 “머루”, 배리 “벼루”, “폐기 “포기”

(41)~(44)는 각각 제1음절의 모음이 ‘ㄱ, ㅋ’인 예들인데, (41)과 (43)은 이중모음 ‘ㄱ’으로 끝나고 (42)와 (44)는 단모음 ‘ㅣ’로 끝나는 예들이다. (41)은 ‘ㄱ-ㄱ’, (42)는 ‘ㄱ-ㄱㅣ, ㄱ-ㅋㅣ, ㄱ-ㅌ-ㅋㅣ, ㄱ-ㅌ-ㅣ, ㄱ-ㅡㅣ, ㄱ-ㅣ, ㄱ-ㅣ-ㅣ’의 모음 연결을 보인다. 먼저, (41)a의 ‘머귀냥’과 (42)f의 ‘머리’는 문헌형과 동일하다. 문헌형의 ‘거유’에 대응되는 (41)의 ‘계위’는 $k\lambda\text{\$}ju > k\lambda j\text{\$}u$ 의 음절 경계 조정을 거쳐 접미사 ‘ㅣ’가 첨가된 다음, ‘ㄱ’의 상승 이중모음화를 거친 것이다. (42)f의 ‘거미’는 문헌형의 ‘거의’에 대응되기 때문에 제2음절의 모음이 비어두음절에서의 ‘-ㅣ>ㅣ’ 변화(정승철 1995: 94)를 경험한 것이다. 문헌형의 ‘거죽, 어즈리-’에 대응되는 (42)f, (42)g의 ‘거짓, 어지리다’의 제2음절 모음은 치찰음 뒤에서의 ‘-ㅣ>ㅣ’ 변화(정승철 1988: 53)의 결과이고, 문헌형의 ‘머느리’와 대응되는 (44)e의 ‘매느리’는 양순음 뒤에서의 ‘ㄱ>ㅋ’ 변화(정승철 1995: 73)를 경험한 것이다. (44)f의 ‘델리’ 역시 중부 방언형으로 미루어 ‘매느리’의 제1음절 모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42)b의 ‘번데기’는 중부 방언형과 비교하여 제2음절이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4)f의 ‘배리’는 대응되는 문헌형 ‘벼로’로 보아 제1음절의 모음은 이기문(1977)에서 재구된 ‘*ㅏ’에 소급되는 것이고,²⁶⁾ (44)f의 ‘폐기’는 문헌형의 ‘포기’에 대응되기 때문에, 제1음절 모음이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으로, 이 두 예는 ‘ㄱ’류 모음의 연결에서 ‘ㅣ’류 모음의 연결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42)b의 ‘정쟁이’는 문헌형의 ‘정강’과 대응된다. 이 예의 제1음절의 모음은 구개음 뒤에서의 j 탈락(정승철 1995: 69)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제2음절의 모음은 음라우트가 일어난 후에 비어두음절의 ‘ㅏ>ㅑ’ 변화(정승철 1995: 28)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음 조화의 예의이다. (44)b의 ‘배채기’의 제2음절 모음 역시 현평효(1962)에 제시된 ‘배차기’로 미

26) 제2음절의 모음은 ‘-ㅏ>ㅑ’의 변화 후에 접미사 ‘ㅣ’가 첨가되고, ‘ㄱ’의 상승 이중모음화와 w 탈락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다른 예들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루어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모음 조화의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²⁷⁾

- (45) 여뀌 “여뀌(<옛귀)”
- (46) 여시 “여우”, 여리-다 “여리다(<여리-)”
- (47) 예전이 “경작하지 못하는 부분”
- (48) a. 굴거리-냥 “굴거리나무”, 귀-주어리 “귓바퀴”, 부러지-다 “부러지다”
 b. 구쟁기 “소라(螺)”, 무제미 “마소 제구의 일종”, 풍뎡이 “풍뎡이”
 c. 송구대기 “흉내”
 d. 물꾸루미 “물끄러미”
 e. 궁둥이 “궁둥이”, 복부기 “허파”, 부구리 “진드기의 성충”
 f. 농그리-다 “가르다”, 웅크리-다 “웅크리다”
 g. 구시 “구유(<구시)”, 빨리 “뿌리”, 우미 “우무”
 h. 부시리 “부시리(魚)”
- (49) a. 켈머리 “괴머리”
 b. 쨌추리 “희초리”
 c. 켈기 “고기”, 쨌머-다 “살다”, 쨌피-냥 “초피나무”
- (50) 윤디 “인두”
- (51) a. 그래기 “기러기”
 b. 글피 “글피”, 트집 “트집”, 드다-다 “디디다”

(45)~(51)은 제1음절 모음이 각각 ‘ㄱ, ㅋ, , ㅌ, ㄲ, ㅌ, , ’인 예들로, (45)는 ‘ㄱ-ㄱ’, (46)은 ‘ㄱ-ㅣ’, (47)은 ‘ㅋ-ㅣ’, (48)은 ‘ㅌ-ㅣ’, ㅌ-ㅣ-, ㅌ-ㅌ-ㅣ-, ㅌ-ㅌ-ㅌ-ㅣ-, ㅌ-ㅌ-ㅣ-, ㅌ-ㅣ-, ㅌ-ㅣ-, ㅌ-ㅣ-ㅣ’, (49)는 ‘켈-ㅣ’, 켈-ㅌ-ㅣ-, 켈-ㅣ’, (50)은 ‘윤-ㅣ’, (51)은 ‘-ㅣ-ㅣ-, -ㅣ-ㅣ’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우선, (45)의 ‘여뀌’와 (46)의 ‘여리다’, 그리고 (48)g의 ‘구시’는 문헌형과 모음 연결이 같다. (46)의 ‘여시’에 대응되는 문헌형은 ‘여스’로 제2음절 모음 ‘-’가 ‘-’로 바뀐 다음 치찰음 밑에서의 ‘->ㅣ’ 변화(정승철 1995: 41, 1988: 53)를 경험한 것이다. 문헌형의 ‘풍뎡이, 고기, 쨌피’에 대응되는 (48)b와 ‘풍뎡이’의 제2음절 모음과, (49)c의 ‘켈기, 쨌피’의 제1음절 모음은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이다. (48)g의 ‘빨리’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블휘’여서 ‘ㅎ’의 약화와 w의 탈락을 경험한 것이다. (48)g의 ‘우미’도 대응되는 문헌형이 ‘우무(가스리)’여서 접미사 ‘ㅣ’가 첨가되어 하향 이중모음화 한

27) 제1음절이 ‘ㅣ’에 소급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ㅣ>ㅣ’ 변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음 조화의 예외가 아니다.

다음, '빨리'의 제2음절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²⁸⁾ (51)c의 '글피, 드디다'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글피, 드디'로, 제2음절의 'ㅣ'는 비어두음절에서의 'ㅣ>ㅣ' 변화(정승철 1995: 94)를 겪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헌형 '그러기'와 대응되는 (51)a의 '그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ㅣ>ㅣ'의 변화를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⁹⁾ 문헌형의 '휘초리'에 대응되는 '휼추리'는 제2음절은 'ㅣ>ㅣ' 변화(정승철 1995:107-108)를 경험한 것이고, 제1음절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wi를 위해 그 사이에 'ㅣ'가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형 '인도'에 대응되는 '윤디'는 설명이 쉽지 않다.

2.2.2.2. 'ㅣ류 모음 + 'ㅣ' + 'ㅣ류 모음/ㅣ류 모음

여기에서는 'ㅣ'가 어중에 있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를 보면 'ㅣ' 뒤에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 (52) a. 서미역 "진드기의 애벌레"
 b. 어리승-ㅎ-다 "어리숙하다"
 c. 섬찌근-ㅎ-다 "섬찍지근하다", 저지르-다 "저지르다"
 d. 번지르르 "번지르르"
- (53) 메지근-ㅎ-다 "미지근하다의 작은말", 배지근-ㅎ-다 "맛이 좋다"
- (54) a. 부지런-ㅎ-다 "부지런하다"
 b. 구티어 "구태어"
 c. 두미에기 "풍뎅이", 눈비에가-를 "암눈비앗"
 d. 쿠시통-ㅎ-다 "구수하다"

(52)~(54)는 'ㅣ류 모음 + 'ㅣ' 뒤에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52)는 'ㅣ-ㅣ, ㅣ-ㅣ-ㅣ, ㅣ-ㅣ-ㅣ, ㅣ-ㅣ-ㅣ-ㅣ', (53)은 'ㅣ-ㅣ-ㅣ', (54)는 'ㅣ-ㅣ-ㅣ, ㅣ-ㅣ-ㅣ-ㅣ, ㅣ-ㅣ-ㅣ-ㅣ'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이 예들은 'ㅣ'가 중립 모음이고, 'ㅣ류 모음'이 'ㅣ류 모음'에서 변한 결과가 아니라면 'ㅣ'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음 조화를 지키는 예들이다. 먼저, (54)a의 '부지런하다'는 문헌형의 '브즈런ㅎ'

28) w 탈락 대신 비어두음절에서 'ㅣ>ㅣ>ㅣ'의 변화를 상정할 수도 있다.

29) 정승철(1995: 73)에서는 양순음 뒤에 한하여 'ㅣ>ㅣ'의 변화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 예를 보면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음절이 음라우트를 겪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j 탈락은 구개음 뒤에서 일어났다(정승철 1995: 69)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와 대응되어 제1음절의 모음은 양순음 뒤에서의 'ㅡ>ㅜ' 변화를, 제2음절의 모음은 치찰음 뒤에서의 'ㅡ>ㅣ' 변화(정승철 1995: 97, 1988: 53)를 경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문헌형의 '구튀어'에 대응되는 (54)b의 '구티어'의 제2음절의 모음은 비어 두음절에서의 'ㅣ>ㅣ' 변화(정승철 1995: 94)를 경험했다.

- (55) 어인간-ㅎ-다 “어연간하다”, 어지간-ㅎ-다 “어지간하다”
- (56) 불치락 “왓락”
- (57) 시-금치랑-ㅎ-다 “시척지근하다”

(55)~(57)은 'ㅣ'가 어중 음절에 있고 그 뒤에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55)는 'ㅣ-ㅣ-ㅣ', (56)은 'ㅜ-ㅣ-ㅣ', (57)은 'ㅡ-ㅣ-ㅣ'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ㅣ'가 불투명한 중립 모음이라면 위의 예들도 모음 조화의 예외가 아니다.

2.2.2.3. 'ㅣ'류 모음 + 'ㅣ'류 모음 + 'ㅣ'

여기에서는 'ㅣ'가 어말 음절에 있고, 그 앞에 'ㅣ'류 모음과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을 검토해 본다. 'ㅣ'류 모음이 'ㅣ'류 모음의 변화의 결과가 아니거나, 'ㅣ'류 모음이 'ㅣ'류 모음의 변화의 결과가 아니거나, 혹은 형태소 경계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모음 조화의 예외이다. 아래의 (58)~(64)는 이 유형에 속하는 예들을 제1음절의 모음별로 분류한 것이다.

- (58) 정가위-냥 “정금나무”
- (59) a. 어마뎡어리(女話) “어마”
 - b. 갈-점방이 “잠방이의 일종”, 걸바시 “거지”
 - c. 저고리 “저고리”
- (60) a. 땡마구리 “땡퐁이”
 - b. 냉바리 “냉과리”, 데가리 “대가리”, 새아리-다 “헤아리다”
 - c. 에노리 “에누리”, 메웅이 “소라고둥”
 - d. 재와니 “바랭이”
- (61) 뿌다귀 “뿌다구니”
- (62) a. 부사리 “나이 든 수소”, 부자리 “배(船)의 일부분”, 북가시-냥 “북가시 나무”
 - b. 입-수와리 “입술의 비어”, 입-수와기 “이마뻬기”
- (63) a. 션사리 “비수리”
 - b. 께꼬리 “피꼬리”

(64) 혼다니 “참견”

(58)은 ‘ㅏ-ㅏ-ㅏ’, (59)는 ‘ㅏ-ㅏ-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60)은 ‘ㅏ-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61)은 ‘ㅏ-ㅏ-ㅏ’, (62)는 ‘ㅏ-ㅏ-ㅏ, ㅏ-ㅏ-ㅏ’, (63)은 ‘ㅏ-ㅏ-ㅏ, ㅏ-ㅏ-ㅏ’, (64)는 ‘ㅏ-ㅏ-ㅏ’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음 조화의 예외들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비교적 확실하다고 간주되는 것들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형의 ‘녕파리’에 대응되는 (60)b의 ‘녕바리’는 제1음절의 모음은 어두음절에서의 ‘ㅏ>ㅏ’ 변화(정승철 1995: 59)가 일어난 것이고 제2음절의 모음은 양순음 뒤에서의 w 탈락(정승철 1995: 77)이 일어난 것이다. ‘데가리’는 문헌형의 ‘더골(腦)’을 참고하면 어두음절에서의 ‘ㅏ>ㅏ’ 변화(정승철 1995: 59)가 일어난 것이며, 형태소 경계가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헌형의 ‘해아리다’에 대응되는 ‘새아리다’는 ‘새+아리-’의 파생 과정을 거친 것이다.³⁰⁾ (62)a의 ‘부사리’는 문헌형의 ‘불암(藥)’ 제주 방언형 ‘나이가 든 솟소’를 뜻하는 ‘부롱이(불+웅이)’로 보아 ‘불(雄)+살(生)+이’로 분석된다. (63)b의 ‘꽤꼬리’는 문헌형의 ‘곳고리’에 대응되는데, 중부 방언과 마찬가지로 ‘ㅏ>ㅏ’의 과정은 분명하지 않지만, 제1음절이 ‘ㅏ’로 바뀌었다가 ‘ㅏ’의 상승 이중모음화(정승철 1995: 59)가 일어난 것이다.

(59)b의 ‘(갈)잠방이’는 문헌형의 ‘잠방이’와 대응되는데, 현평효(1962)에 수록된 단독형 ‘잠방이’와 문헌형의 ‘자개얹’에 대응되는 제주 방언형 ‘죽쟁이’을 고려한다면, ‘*자>즈’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 ‘ㅏ>ㅏ’ 변화(정승철 1995: 34-35)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헌형의 ‘적삼(금삼 3:12)’이 ‘*적’과 ‘산(<衫 ?)’(박번, 상: 37)의 복합어라면, (59)c의 ‘저고리’에 대응하는 문헌형 ‘저고리~저구리’는 ‘*적+오리/우리’로 분석할 수 있어서, ‘저고리’에 형태소 경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형의 ‘것바시’에 대응하는 (59)b의 ‘걸바시’를 비롯하여 대응되는 문헌형이 없는 나머지 예들은 모음 조화의 예외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다.

2.2.3. ‘ㅏ’류 모음의 연결

다음에는 ‘ㅏ’류 모음 뒤에 ‘ㅏ’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예들도 ‘ㅏ’류 모음이 ‘ㅏ’류 모음에서 변화한 결과가 아니거나, ‘ㅏ’류 모음이 ‘ㅏ’류 모음에서 변화한 결과가 아니거나, ‘ㅏ’류 모음과 ‘ㅏ’류 모음 사이에 형태소 경계를 부여할 수 없는 한, 모음 조화의 예외로 남는다.

30) 양정호(1991: 61, 주 32)에서는 이 파생 접미사가 *가리-에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65) a. 거자 “거의”, 얼마 “얼마”, 적삼 “적삼”
- b. 처나반 “천장”
- c. 저녁, ㉠즈낙 “저녁”
- d. 거왕 “처마 끝에 매는 줄”, 적관-ㅎ-다 “겪다”
- e. 어불싸 “어쁠싸”, 텨불랑 “텨빙”, 허우작-거리-다 “허우적거리다”
- f. 건두와-사다 “곤두서다”
- g. 편들랑 “번쩍”, 얼트라-달트라 “울퉁불퉁”
- (66) a. 재발 “재발”, 벨착-벨착 “벌근벌근”, 페랍-다 “성질이 유순하지 못하다”
- b. 체암 “처음”, 벨양 “별명”
- c. 배록 “벼룩”, 델록-델록 “날름날름”, 배옥이다 “약간 벌리다”
- d. 멘도롱-ㅎ-다 “따스하다”, 배소롬-ㅎ-다 “약간 기우다”
- e. 게와 “호주머니”

(65)와 (66)은 ‘ㄱ, ㅋ’ 뒤에 ‘ㄹ’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각각 ‘ㄱ-ㄹ, ㄱ-ㄹ-ㄹ, ㄱ-ㄹ, ㄱ-ㄹ, ㄱ-ㄹ-ㄹ, ㄱ-ㄹ-ㄹ, ㄱ-ㄹ-ㄹ’와 ‘ㅋ-ㄹ, ㅋ-ㄹ, ㅋ-ㄹ, ㅋ-ㄹ-ㄹ, ㅋ-ㄹ’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먼저, (65)a의 ‘거자’는 문헌형의 ‘거의’를 고려할 때 *‘거의+아’로 분석되고,³¹⁾ 문헌형의 ‘언마(상-거)’는 ‘어느(평-거)+마~만(거)’의 통어적 합성어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얼마’도 형태소 경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적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산’의 형태소 경계를 부여할 수 있다. (65)e의 ‘허우작(거리다)’은 *‘허위+작’으로 분석되고, (65)f의 ‘건두와(사다)’은 *‘건두(筋斗)+와’으로 분석될 수 있다.³²⁾ (65)c의 ‘저녁’의 제1음절 모음에 대해서는 정승철(1995: 110)에서 *‘ㅛ’에 소급된다고 추정된 바 있다. (66)c의 ‘배록’ 역시 문헌형의 ‘벼룩’과 대응되므로,³³⁾ 후기 중세국어의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를 고려할 때 제1음절 모음이 *‘ㅛ’에 소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65)b의 ‘체암’은 그에 대응되는 문헌형의 ‘처음’의 제1음절의 성조가 거성으로 ‘첫’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첫+엄’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³⁴⁾ (65)b의 ‘처나반’ 역시 첫 음절

31) 문헌형의 ‘△’에 ‘ㅜ’이 대응되는 예로는 그밖에도 ‘호불샤:혼자, 나샤:난지’ 등이 있다.

32) *‘허위’에 대해서는 현평효(1962)에 수록된 ‘허위여가다: 허덕거리며 바삐 걸어가다’와 ‘허위여들다: 허덕거리며 바삐 들어오다’ 참조. 그리고, ‘근두:건두’의 모음 대응과 유사한 것으로는 문헌형의 ‘브르르다’와 대응되는 ‘벼름르다’, 현대 중부 방언의 ‘으스름’에 대응되는 ‘어스름’을 들 수 있다.

33) ‘늑벼룩’(구방, 하: 94)과 ‘늑벼룩’(능엄 4:18)의 ‘벼룩’도, 성조가 ‘평-거’로 단독형과 일치하고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4) 이렇게 보았을 때의 문제는 ‘ㅜ > △’의 변화이다. 이 변화는 주로 복합어의 형태소 경

이 '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예들에 대해서는 모음 조화 예외의 원인을 찾기 힘들다.

(67) a. 연장 "연장(<연장)", 역삭다 "약빠르다"

b. 여복 "여복"

(68) 예라 "예라"

(69) a. 구살 "성계", 풍당 "풍당", 구상-낭 "구상나무"

b. 굴목 "아궁이", 주총 "쇠꼬리채", 수좁-다 "수좁다"

c. 수왓-낭 "산유자나무"

d. 수두락-하-다 "수두룩하다"

e. 부스락 "부스럭", 수근닥-공론 "쑥떡公論", 폰드랑-하-다 "호뭇하다"

(67)~(70)은 'ㄱ, ㅋ, ㆁ' 뒤에 'ㄹ'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67)은 'ㄱ-ㄹ, ㅋ-ㄹ', (68)은 'ㄱ-ㄹ', (69)는 'ㄷ-ㄹ, ㅌ-ㄹ, ㄷ-ㄴ, ㄷ-ㄷ-ㄹ, ㄷ-ㄴ-ㄹ'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이 중에서 (67)a의 '역삭-(역-+삭(?))', (69)b의 '굴목(<굴+목)', 주총(<주+총)', (69)e의 '수근닥(공론)(수근+닥)'은 형태소 경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⁵⁾ 또한 (69)a의 '풍당', (69)e의 '부스락'은 '풍당, 부스락'이 존재하므로, 어기의 제1음절에만 한정된 모음의 교체(정승철 1995: 114)로 설명할 수 있다. (69)c의 '수왓(낭)'도 '그 앞을 건드렸을 때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왓'이라는 모음 교체형을 가지고 있어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70) a. 궤약-하-다, "고약하다", 돼알-지-다 "되알지다"

b. 원통 "은통", 궤롭-다 "괴롭다"

(71) a. 그단, "그다지", 그자 "거저", 으남 "안개"

b. 능활-낭활 "흔들흔들"

c. 으슬랑-으슬랑 "어슬렁어슬렁", 흘그랑-흘그랑 "그르렁그르렁"

(70), (71)은 'ㄱ, ㆁ' 뒤에 'ㄹ'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로, (70)은 'ㄱ-ㄹ, ㅋ-ㄹ', (71)은 'ㄴ-ㄹ, ㄴ-ㄴ, ㄴ-ㄴ-ㄹ'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이 중에서 (70)a의 '궤약 하-다'의 제1음절 모음은 [oʃja]의 모음 연결이 [oɳʃa]의 연결로 음절 경계가 조정된 후 어의 상향 이중모음화(정승철 1995: 59)가 일어난 것이다. (70)b의 '궤롭다, 돼

계에서 과도음 j와 'ㄹ, ㄴ'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문 1977: 34-35)이 원칙이었다.

35) '역삭'에 대해서는 '역'이, '굴목'에 대해서는 '목'이, '주총'에 대해서는 '(말)총'이, '수근닥'에 대해서는 '수근수근'이 존재한다.

알지다'의 제1음절 모음은 '나'의 상향 이중모음화를 경험한 것이다. 또한 (70)b의 '웬똥'과 (71)a의 '그닷'은 '웬(<은(全))+똥', '그+닷'으로 분석할 수 있고 (71)c의 '홀그랑홀그랑'은 '홀그랑홀그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기의 제1음절에만 한정된 모음의 교체(정승철 1995: 114)로 설명할 수 있다.

2.3. 'ㅣ' 모음 뒤

'ㅣ'는 모음 조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중립 모음으로 인정되어 왔다. 제주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ㅣ' 뒤에는 'ㅣ'류 모음, 'ㅣ'류 모음이 연결되어 불투명한 모음임을 알 수 있다.

2.3.1. 'ㅣ'류 모음의 연결

다음의 (72), (73)은 'ㅣ' 뒤에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로, (72)는 'ㅣ-ㅣ, ㅣ-ㅣ, ㅣ-ㅓ, ㅣ-ㅕ', (74)는 'ㅣ-ㅣㅣ, ㅣ-ㅕ-기'의 모음 연결을 보여 준다.

- (72) a. 비싸다 "비싸다", 지장 "기장(<기장)", 질쌘 "질쌘(<질쌘(하다))"
- b. 이라 "이러", 비약-비약 "삐약삐약"
- c. 일곱 "일곱", 지동 "기동", 시동-주다 "똥, 똥비를 뿌리다"
- d. 신부름 "심부름"
- (73) a. 비바리 "치녀"
- b. 신돌뛰 "진달래"

먼저, (72)c의 '시동(주다)'는 문헌형의 '쑹'에 대응되는데, 15세기 문헌형의 '밭'이 '*밭술'에서 제1음절의 모음 탈락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기문 1977: 60~61)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음절의 'ㅣ'는 기원적인 것이 아니라 음운 변화의 결과로 생각된다.³⁶⁾ (72)a의 '비싸다'는 문헌형의 '빈스'에 대응되고 이 문헌형은 다시 '빈(석보 6:24)+ㅅ-(석보 13:22)'로 분석된다는 점과, 제주 방언에서 "비싸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방언형이 '빈나다(<빈+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싸다' 역시 '빈+싸(<ㅅ)'로 분석된다. (72)c의 '지동'에 대응되는 문헌형인 '기동'이 '긴(훈민-원, 해례:22)+웅'으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지동'도 '진(<긴)+웅'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72)c의 '일곱'에 대응되는 문헌형은 '닐곱'이기 때문에, 제2음절의 'ㅓ' 역시 기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6) 이기문(1977: 61)에서는 '오독똥기'가 '*오독부똥'에서 변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주 방언에서 어두에서 '*소>시, *수>시'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ㅅ'가 탈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72)a의 '지장'과 '질쌈'은 문헌형과 모음 연결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예들에서의 'ㄷ'은 기원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형태소 내부에서 'ㄷ' 뒤에 'ㄷ'가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73)b의 '신돌튀'는 문헌형의 '진돌위'에 대응되어 'ㄷ' 뒤에 'ㄷ'는 물론 '기[*uj]'까지도 올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³⁷⁾

2.3.2. 'ㄷ'류 모음의 연결

다음에는 'ㄷ' 뒤에 'ㄷ'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74) a. 기정 “絶壁”, 이렁 “이랑”, 싱겁-다 “싱겁다”
 b. 히더분-ㅎ-다 “홀어지거나 어지럽다”
 c. 빈네 “비너”, 빈대 “빈대”, 핑계 “핑계”
 d. 미련-ㅎ-다 “미련하다”
 e. 히어득-ㅎ-다 “어지럽다”
 f. 비누 “비누”, 이불 “이불”, 이울-다 “이울다”
 g. 씨원-하다 “시원하다”
 h. 비늘 “비늘(<비늘)”, 일름 “이름”, 사들-다 “사들다(<사들-)”
 i. 빌호림 “보채는 짓”, 지스렁-물 “들암말”
 j. 지들투-다 “지저르다”
 k. 빙그르르 “빙그르르”
- (75) a. 시러미 “시로미”, 인절미 “인절미”
 b. 미네기 “미나리”
 c. 미여지-뱅-뒤 “넓은 벌판”
 d. 옷-지두리 “조자리”
 e. 밀꾸루시 “물끄러미”
 f. 지드리-다 “기다리다(<기드리-)”, 찌그리-다 “찌그리다”, 쟁그리-다 “쟁그리다”
 g. 지미 “기미”, 시리 “시루”, 진작 “진작”
 h. 밀취 “밀치”
- (76) a. 시치렁-ㅎ-다 “매우 선선하다”
 b. 찻지근-ㅎ-다 “찻질하다”
 c. 빈지르르 “번드르르”

37) 비어두위치의 ‘ㄷ’은 ‘ㄷ, ㄱ’로 변하는 것이 원칙(경승철 1995: 41, 48)에 비추어 볼 때, 제2음절의 ‘ㄷ’가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돌튀’가 형태소 경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74)는 'ㅣ' 뒤에 'ㅣ'류 모음만 연결되는 예이고, (75)는 제1음절의 모음이 'ㅣ'로 시작되어 'ㅣ'로 끝나는 예이며, (76)은 'ㅣ+' 뒤에 'ㅣ'류 모음이 연결되는 예이다. 먼저, (74)a의 '싱겁다'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슴잡-'으로 치찰음 밑에서의 'ㅡ>ㅣ' 변화(정승철 1988: 53)를 겪은 것이므로, 'ㅣ'가 음운 변화의 결과이다. 문헌형의 '식환하-'에 대응되는 (74)g의 '씨원하다'의 'ㅣ'는 '*ㅣ'에 소급되는 것이다. (74)f의 '비누'는 문헌형의 '비노'와 대응되어 제2음절 모음이 비어두음절에서의 'ㄴ>ㄷ' 변화(정승철 1995: 107~108)를 경험한 것이다. (74)c의 '빈데'는 중부 방언형과 비교할 때, 비어두음절에서의 'ㅣ>ㅣ' 변화(정승철 1995: 28)의 결과이므로, 'ㅣ' 역시 기원적인 것은 아니다. (75)b의 '미네기'는 문헌형의 '미나리'와 대응되므로, '*민+에기(<어기)'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74)h의 '일콧'은 대응되는 문헌형 '일콧'이 '*일+음'으로 분석되기 때문에,³⁸⁾ 형태소 경계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74)c의 '빈데'는 문헌형의 '빈혀'와 대응되므로, 제2음절 모음이 '*ㅣ>ㅣ'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74)c의 '핑계'는 문헌형의 '핀계(ㅎ-)'와 대응되므로, 제2음절의 모음은 j가 탈락된 결과이다. (74)f의 '이불, 이올다'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니불, 이불'이므로 제2음절의 모음이 양순음 뒤에서의 'ㅡ>ㅣ' 변화(정승철 1995: 97)의 결과이다. (75)g의 '지미'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기미'로 제2음절의 모음은 비어두음절에서의 'ㄴ>ㅣ' 변화(정승철 1995: 94)의 결과이다. 또한 '시리'는 문헌형의 '시르'에 대응되므로, 제2음절에서 'ㅡ>ㅣ'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74)h의 '비늘, 시들다'와 (75)f의 '지드리다'는 문헌형과 모음 배열이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ㅣ' 뒤에 올 수 있는 'ㅣ'류 모음으로는 'ㅣ, ㅡ, ㄴ'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3.3. 'ㅣ'류, 'ㅣ'류 모음의 연결

아래의 (77)과 (78)은 'ㅣ' 뒤에 'ㅣ'류 모음과 'ㅣ'류 모음이 모두 연결되는 예들이다.

(77) a. 밍그랑-하-다 “너무 묽다”, 심드랑-편편 “심드렁”, 지그락-지그락 “지그럭지그럭”

b. 시금초 “시금치”

(78) 휘틀랑 “휘우똥”

38) '*일-'은 중세 국어의 '일콧'이 '*일+음'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이기문(1971b)에서 제기된 바 있다.

(77)b의 '시금초'는 문헌형의 '시근취'에 대응되는데, 이것은 '시근취 통 又呼赤根菜'(훈몽-초, 상:8)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형태소 경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3. 형태소 경계

3.1. 파생

송상조(1991)에 제시된 파생 접사를 살펴보면 제주 방언에서 파생 접사는 일반적으로 모음 조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음 조화를 따르는 파생 접사들도 있다.⁴⁰⁾ 여기에서는 이러한 접사들을 살펴보고, 이어 모음 조화의 관점에서 중부 방언과 다른 파생 접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1. 모음 조화 준수

정승철(1995: 129-130)에서는 모음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접미사로 명사파생의 '*-악/억', '-아리/어리', '-앙/영', 형용사파생의 '-압/업-'등을 지적하고 다음의 (79)와 같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79)는 '-악/억, -아리/어리, -앙/영, -압/업-'등이 모음 조화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79) a. 밭작(밭+*-악) "매듭", 터럭(털+*-억) "털"
 b. 텃가리(텃+아리) "텃", 둥어리(둥+어리) "둥어리",
 c. 고장(꽃+앙) "꽃", 트멍(름+영) "름",
 d. 조랍(줄+압-) "줄리다", 미덤(밑+업-)

다음의 (80)도 파생 접사 '-으러기/으라기'가 모음 조화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문헌형의 '붓어디-', '벗스-'를 고려한다면 (80)a, b는 여기 '*부스-(*<브스-)', '*벗스-'와 파생 접사 '-러기/라기'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9) 제3음절의 '초'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40)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행선님의 자료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고동호(1995b)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자료는 대부분 음라우트가 피동화 음에 과도음 j가 첨가되는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다. 만약 단모음으로 실현되었다면, 비어두음절에서의 'j>ç' 변화(정승철 1995: 28)로 접사의 모음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80) a. pusulajki “부스러기”

b. posulajki “바스라기”

이 이외에 우리는 모음조화를 따르는 접미사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추가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81)은 파생 접미사 ‘아기’가, (82), (83)은 파생 접미사 ‘-어기’가 통합된 예들로, 각각 어기말 음절의 모음별로 분류하여 배열한 것이다. 다음의 예를 검토해 보면, 접사 ‘-아기’는 ‘ㄷ’류 모음 뒤와 어기말 개음절 ‘ㄱ’ 뒤에 통합되고, ‘-어기’는 ‘ㄷ’류 모음 뒤와 ‘ㄹ’, 그리고 j 뒤에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81) a. hepalajki “해바라기”, ŋuŋpalajki “중대가리”

b. pealajki “배가 얼룩덜룩한 소”

c. palmokajki “발목”, tʰoŋmokajki “담배통의 구부러진 안쪽 부분”

d. solajki “짜라기”, ŋɔpajki “수제비”, pʰɔtʰɔlleki “곰배팔이”, iptɔlajki “입비둘이”

e. kʰomellajki “코가 낮은 사람”

f. antʰuwajkisonkʰalak “집게손가락”, kɔktʰuwajki “잘 할퀴는 사람”

(82) a. kʌmpulejki “검부러기”

b. tutulejki “두드러기”

c. moŋkwulejki “모지랑이”

d. naɔajki “넓이”

(83) a. kilʌki “세로”, nantʌŋtʰeki “나무의 등치”, pitʰeki “비지”, mukeki “무거리”

b. kulʌjkinatʰ “굴거리나무”, pʰukʰeki “행쇠”, allejki “일레빗”, pukeki “입구가 좁은 먹동구미”, ŋʰikʰajki “찌꺼기”

(81)a의 palajki는 ‘바라-’의 제주 방언형은 ‘바래-’이기 때문에, 다른 방언으로 부터 차용되어 온 후에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81)b는 ‘알룩달룩’의 제1음절 *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81)c의 어기는 ‘목’이고, (81)d의 어기는 각각 ‘쌀(쌀), 줌-(집-), 줄르(<줄르: 째-), *톨’이다. *톨’은 ‘트라지다(비뚤어지-)’에서 재구한 것이다. (81)e는 어기가 ‘멜르-(찌그러뜨리-)’인데, 부사형어미로는 ‘-아’가 통합되기 때문에, *mʌlʌ-로 재구할 수 있다. (81)f는 어기말 모음이 ‘ㄱ’로 ‘ㄷ’류 모음이지만, 이것은 3.2.1.에서 언급하게 될 것처럼 제2음절 이하의 개음절 ‘ㄱ’어간 뒤에 ‘ㄷ’류 어미가 첨가되는 현상과 동일하다.

(82)의 어기는 각각 ‘검불-, *두들-, 몽글-, 넓-’인데,⁴¹⁾ ‘-아’계 어미가 통합되는

'몽글-' 뒤에 파생 접사 -ejki가 통합되는 점이 특이하다. 파생 접사 '모음 조화'의 예외로, 어기말 모음 'ㅡ'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tutulejki의 어기 *두들'은 현대 중부 방언의 '두드러지-'나 제주 방언형 '두들두들(울룩불룩)'에서 재구할 수 있다.

(83)은 어기말 모음이 'ㅣ'인 예들이다. (83)a의 어기는 각각 *길, 덩치(cf. 낭덩치: 현평효 1962: 393), 비지(훈몽-초, 중:11), 무기(내훈-초, 2하:51-52)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83)b의 어기는 각각 '글개(현평효 1962: 378), 푸개(현평효 1962: 573), 얼에(빛)(구간 6:66), 부개(현평효 1962: 461)", 중의(법화 4:19)인 것으로 추정된다.

(84) a. kolkajni "호미"

b. k'ollejni "꼬랑이", sint'olkexi "당감잇줄", p^helaxi "패랭이"

(85) a. kutejni "구덩이", nunejni "누룽지"

b. k'Λk'Λjɔni "자루가 부러진 숟가락",

c. kuulkejni "갈퀴, cf. 글개(박번, 상:21)"

d. tʃutʃexi "어영 위에 덧덮는 것", malʃ'ikajɔni "덜적이"

e. musejni "매끼", tʃ'ikajɔni "버캐", makt'Λjɔni "막대기"

(84)는 접미사 '-앙이'가, (85)는 접미사 '영이'가 통합된 예들로, 각각 어기의 모음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각각의 어기는 (84)a가 '죤-(구방, 상:66)', (84)b가 '꼬리, 신들기(현평효 1962:406)'이며,⁴²⁾ (85)a가 '굴(월곡 60.), 눌-(구간 1:81)', (85)c가 '꺾-(<꺾-)', (85)d가 '주지(박번, 상:27), 덜적'이며, (85)e는 각각 '무세(현평효 1962: 428), 중의(법화 4:19)'이다. (85)e의 마지막 예는 문헌형의 '막다히(금삼 4:7), 막대(법화 7:53)'을 고려할 때, '막대'의 제2음절이 '|| > ㅍ' 변화를 겪은 후에 접미사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예들을 보면, 접미사 '-앙이'는 'ㄴ, ㅣ' 뒤에 통합되고, '-영이'는 'ㄷ, ㅌ, ㄹ, ㅈ' 뒤에 통합되어 모음 조화를 준수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halajpi "할아비", halʃexpi "허수아비"에서 '-아비/어비'의 파생 접사를 분석해 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둘째 예에서 *'헛'이라는 어기를 설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1) (82)d의 napajki는 '어기가 '너비'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42) p^helaxi는 '패리(현평효: 1962: 577)'에서 파생된 것인지, '패랭이(탐역-초 3:23)'와 동원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후자라면, 문헌형과 제주 방언형의 모음 조화를 고려할 때, 제1음절의 모음은 *'ㅏ'에 소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2. 모음 조화 위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파생 접사는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류에 속하는 접사들 중에 중부 방언과 모음 부류가 다른 접사들이 통합되는 것들, 즉 중부 방언의 'ㄷ'계 접사에 대해 제주 방언의 'ㄷ'계 접사가, 중부 방언의 'ㄷ'계 접사에 대해 제주 방언의 'ㄷ'계 접사가 통합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정리해 두고자 한다.

다음의 (86)은 제주 방언형에서는 'ㄷ'계 접사가 통합된 반면, 중부 방언형은 'ㄷ'계 접사가 통합된 예들이다.

- (86) a. 자꼬(<갓+고) “차꾸”
- b. 몰락-몰락 “몰렁몰렁”, 불락-ㅎ-다 “불룩하다”, 몰랑-ㅎ-다 “몰렁하다”, 뒤작-뒤작 “뒤적뒤적”
- c. 꼬막-꼬막 “꼬먹꼬먹”, 들막-들막 “들먹들먹”
- d. 들씩-들씩 “들씩들씩”
- e. 아방 “아버지”, 오라방 “오라버니”, 오라바-님 “오라버님”
- f. 노룻 “노룻(<노룻)”
- g. 끔박 “끔박”
- h. 끔작-끔작 “끔적끔적”
- i. 넓작-ㅎ-다 “넓적하다”, 꺾작-꺾작 “꺾적꺾적”, “끈작-끈작 “끈적끈적”, 늘작-늘작 “늘쟁늘쟁”

(86)a는 '갓-(類)+고'로, (86)b는 '무르-(軟)+악, 부르-(膨)+악, 무르-(軟)+앙, 뒤지-+악'으로, (86)c는 '꼬-(消)+막, 들-(擧)+막'으로, (86)d는 '들-(擧)+씩'으로, (86)e는 '*압+앙, *울+*압+앙, *울+*압+아님'으로, (86)f는 '놀-+웃'으로, (86)g는 '끄-+ㅁ 박(?)', (86)h는 '끄-+ㅁ 작(?)'으로, (86)i는 '넓-+작, 꺾-+작, *끈-+작(cf. 끈끈하다), 늘-(緩)+작'으로 분석된다.⁴³⁾

(87) a. 묻거지 “모꼬지(<묻ㄷ지)”

43) (86)f의 제2음절 모음 'ㅛ'는 '노룻(<놀-+웃)'에서 비어두음절에서의 'ㄹ>'변화(정승철 1995: 41)를 거쳐 제1음절의 모음에 동화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질락-질락(<질(泥)+락) “질척질척”, 움막-ㅎ-다(<*움+막. cf. 움속) “움푹하다”, 늘씩-늘씩(늘(緩)+씩) “느릿느릿”, 얼랑-거리다(<어르-+앙) “얼렁거리다”, 얼랑-쉬(어르-+앙) “얼렁수”, 흥강-ㅎ-다(<*흥그-+앙?) “흥건하다” 등 'ㄷ'계 접미사가 통합되는 예들이 있다.

- b. 우통 “위통”
- c. 올라-느려 “오르락내리락”

(87)은 제주 방언에서는 ‘ㄱ’계 접사가 통합된 반면에, 중부 방언에서는 ‘ㄴ’계 접사가 통합된 예들이다. (87)a는 ‘묻-(會)+-거지’로, (87)b는 ‘올-(上)+-등’으로, (87)c는 ‘느리-(下)+-억’으로 분석되는데, ‘-거지’의 제1음절은 비어두음절에서의 ‘- > ㄱ’ 변화(정승철 1995: 48)로, ‘-등’은 비어두음절에서의 ‘- > ㄴ’ 변화(정승철 1995: 107~108)로, ‘-억’은 ‘ㄴ’ 뒤에서의 ‘ㄱ’계 활용 어미의 통합(3.2.2. 참조)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ㄴ’계 접사와 ‘ㄱ’계 접사의 방언에 따른 이러한 교차에 대해, (87)의 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ㄴ’계 접미사들이 기원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활용

여기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가 통합될 때의 모음 조화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어미에 모음 조화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어미가 ‘-아/어’로 시작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어간에 ‘-아도/어도’를 통합시켜 ‘-아도’가 통합되면 ‘ㄴ’류 어미가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도’가 통합되면 ‘ㄱ’류 어미가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2.1. ‘ㄴ’류 어미

먼저, ‘ㄴ’류 어미가 통합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ㄴ’류 어미가 통합되는 어간은 어간말 음절의 모음이 ‘ㄱ, ㄴ, ㄷ, ㄹ, ㄴ, ㄴ, ㄴ’인 어간과, ‘ㅂ’ 변칙 용언이다. 이러한 순서로 각 유형별로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 (88) a. 가라도(갈+아도) “갈아도(耕)”
- b. 가도(가+아도) “가도”
- c. 타나도(타나+아도) “달라도(異)”
- d. 가차와도(가차+아도) “가까워도”, 고마와도(고맙+아도) “고마워도”

(88)은 어간 모음이 ‘ㄴ’인 예들로, 각각 1음절 폐음절 어간, 1음절 개음절 어간, 2음절 어간, ‘ㅂ’ 변칙 용언인 예들이다. 이 예들로 미루어, 어간말 모음이 ‘ㄴ’일 때는 ‘ㄴ’계 어미가 통합됨을 알 수 있다.

- (89) a. 고라도(골-+-아도) “골아도”
 b. 꼬아도(꼬-+-아도) “꼬아도”
 c. 모따도(모도-+-아도) “모아도”
 d. 꼬스라도(꼬술오-+-아도) “피어도”
 e. 고와도(고-+-아도) “고와도(美)”
- (90) a. 과라도(괘-+-아도) “괘아도”
 b. 내와다도(내완-+-아도) “내밀어도”

(89), (90)은 어간 모음이 ‘ㄱ, ㄴ’인 예들로, (89)는 각각 1음절 폐음절 어간, 1음절 개음절 어간, 2음절 어간, 3음절 어간, ‘ㅂ’ 변칙 용언인 예들이고, (90)은 각각 1음절, 2음절 어간인 경우이다. 이 예들로 미루어, 어간말 모음이 ‘ㄱ, ㄴ’일 때는 ‘ㄷ’계 어미가 통합됨을 알 수 있다.

- (91) a. 바파도(바꾸-+-아도) “바뀌도”, 재와도(재우-+-아도) “재워도”, 솟과도(솟구-+-아도) “솟게 해도”, ㄴ뵤도(ㄴ누-+-아도) “나눠도”
 b. 거따도(거두-+-아도) “거뒀도”, 계와도(계우-+-아도) “계워도(吐)”, 여주아도(여주-+-아도) “여쭈도”, 부수아도(부수-+-아도) “부수아도”, 뒹와도(뒹우-+-아도) “뒹러도”, 글화도(글투-+-아도) “물려다녀도”
 c. 비취도(비추-+-아도) “비취도”
- (92) a. ㄱ무라도(ㄱ물-+-아도) “가물아도”, 아무라도(아물-+-아도) “아물어도”
 b. 따무라도(따물-+-아도) “제촉하여도”

(91), (92)는 어간 모음이 ‘ㄷ’인 예들로, ‘ㄷ’ 앞 음절의 모음이 (91)a는 ‘ㄷ’류 모음, (91)b는 ‘ㄷ’류 모음, (91)c는 ‘ㄷ’인 예들이고, (92)c는 ‘ㄷ’가 양순음 뒤에 있고, 양순음 앞의 모음이 ‘ㄷ’류 모음인 경우이다. (91)의 예를 보면, 공통적으로 2음절 어간에다 제2음절이 개음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1음절의 모음에 관계없이 ‘ㄷ’류 어미가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한편, (92)의 예에서 제1음절의 모음이 ‘ㄷ’류 모음인 것으로 보아서, 정승철(1995: 119)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2음절의 ‘ㄷ’는 비어두음절에서의 ‘>ㄷ’ 변화 및 양순음 뒤에서의 ‘>ㄷ’ 변화를 경험한 결과이다. (92)a에 대응되는 문헌형이 ‘ㄱ물-, 암굴-’이라는 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2)b의 어간은 ‘물-’과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두음절에서의 ‘>ㄷ’ 변화(정승철 1995: 38)

44) 우연인지는 모르나, 3음절 이상의 ‘우’ 개음절 어간은 발견할 수 없었다.

를 경험한 다음에 이 파생어가 형성되어, (92)a의 용언들과 같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 (92) a. 갈라도(갈르-+아도) “갈라도”, 야파도(야프-+아도) “알아도”, 골라도(골르-+아도) “골라도(均)”, 보까도(보끄-+아도) “볶아도”, ㄹ느라도(ㄹ늘-+아도) “가늘어도”, 다드마도(다듬-+아도) “다듬어도”,
- b. 멩그라도(멩글-+아도) “만들어도”, ㄹ무까도(ㄹ무끄-+아도) “뻘어도”, 벨라도(베르-+아도) “별러도, 벌려도”
- c. 델싸도(델쓰-+아도) “찌그러뜨려도”, 해싸도(해쓰-+아도) “해쳐도”, 뒤싸도(뒤쓰-+아도) “뒤집어도”, 베르싸도(베르쓰-+아도) “(조금)벌려도”

(92)는 어간말 모음이 ‘ㄹ’일 때 ‘ㄹ’계 어미가 통합되는 예이다. ‘ㄹ’ 앞의 음절의 모음이 (92)a는 ‘ㄹ’류 모음인 예들이고, (92)b는 ‘ㄹ’류 모음인 예들이며, (92)c는 후기 중세국어의 강세접미사 ‘-혀-’와 관련이 있는 예들이다. 먼저, (92)a의 예들에 대해서는 모음 조화를 고려하여 ‘ㄹ’이 ‘*’에 소급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응되는 문헌형들이 ‘가르-, 고르-, ㄹ늘-, 다듬-’인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⁴⁵⁾

(92)b의 앞의 두 예에 대해서도 똑같이 추정할 수 있다. ‘멩글-’에 대응되는 문헌형이 ‘밍글-’로 보아 제1음절은 ‘ㄹ’ > ㅍ 변화, 제2음절은 ‘ㄹ’ > ㄹ 변화(정승철 1995: 59, 42)를 겪었음을 알 수 있고, ‘ㄹ무끄-’에 대해서도 근대 시기의 문헌형이기는 하지만 ‘ㄹ뭇-’이 나타나서, 제2음절의 모음이 ‘*’ > ㄹ의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벨라도’는 ‘별러도’의 의미일 때는 대응되는 문헌형이 ‘버르-’로 제1음절 모음이 이기문(1977)에서 제구된 ‘*’에 소급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⁴⁶⁾

(92)c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후기 중세국어의 강세접미사 ‘-혀-’가 포함된 예들이다. ‘델쓰-’에 대응되는 문헌형은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예들에 대해서는 ‘해혀-, 드위혀-, 버리혀-’의 문헌형이 나타난다. 이 ‘-혀-’는 정승철(1995: 71)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에 소급되고 제주 방언에서 j의 탈락을 거쳐 ‘ㄹ’ > ㄹ의 변화를

45) ‘아트-, 보끄-’에 대응되는 문헌형은 ‘널-, 볍-’인데, 주 12)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헌형의 어간말 유기음이나 자음군에 제주 방언형은 규칙적으로 ‘ㄹ’을 포함하는 개음절이 대응되는데, 이 ‘ㄹ’이 기원형인지 후대형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일단, 기원형으로 잡고, ‘ㄹ’류 모음 뒤의 어간말 ‘ㄹ’은 ‘*’에 소급되는 것이라고 간주해 둔다. ‘아트-’의 제1음절의 모음은 ‘ㄹ’/ ㅍ 모음 교체(정승철 1995: 109)로 설명할 수 있다.

46) 그러나, “벌려도”의 의미일 때는 설명이 쉽지 않다.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헌형은 ‘버리-’인데, 모음들의 대응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경험한 것이다. '빠-'에 대응되는 제주 방언형이 '(불을) 싸-, (바닷물이) 싸-'라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싸-'로 말미암아 'ㄱ'계 어미가 연결되는 것이다.

- (93) a. 뭉지가도(뭉직-+아도) "만져도", 줌지라도(줌질-+아도) "잘아도"
 b. 쟁지라도(쟁질-+아도) "(꺾어)짜도"

(93)은 어간의 말음절 모음이 'ㅣ'이고, 뒤에 'ㄱ'계 어미가 연결되는 예로, (93)a는 'ㅣ' 앞 음절의 모음이 'ㅣ'류 모음이고, (93)b는 'ㄱ'계 모음이다. 그런데, (93)b는 뒤에 'ㄱ'계 어미가 연결된다는 점과, 같은 뜻으로 '줍질-'도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줍-'과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ㅈ'로의 변화 과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1음절 모음이 'ㅣ'류 모음에 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3.2.2.에서 살펴계 될 것처럼, 어간말 모음이 'ㅣ'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ㄱ'계 어미가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들은 'ㅣ' 개음절이거나 'ㅣ'류 모음+폐음절 어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2음절 이하에서 'ㅣ'류 모음+ 'ㅣ' 폐음절 어간 뒤에는 'ㄱ'계 어미가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4) a. ㄱ라도(ㄱ-+아도) "갈아도(磨)"
 b. 깨드라도(깨든-+아도) "깨달아도"
 (95) 으가도(jok-+ato) "약아도", 으마도(jom-+ato) "여물어도"

(94)와 (95)는 어간말 모음이 각각 'ㄱ'·'ㅇ'·'ㅁ'인 예들이다. 이들 어간 뒤에는 항상 'ㄱ'계 어미가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6) a. 고와도(곱-+아도) "고와도(美)",
 b. 궤와도(궤-+아도) "사랑스러워도",
 c. 쉬와도(쉽-+아도) "쉬워도", 미워도(밉-+어도) "미워도"
 (97) a. 반가와도(반갑-+아도) "반가워도", koljowato(koljop-+ato) "가려워도",
 케로와도(케롭-+아도) "괴로워도", 므스와도(므습-+아도) "무서워도"
 b. 더러와도(더럽-+아도) "더러워도", 가베와도(가벵-+아도) "가벼워도도",
 어려와도(어렵-+아도) "어려워도", 불투와도(불툭-+아도) "부러워도"
 c. 알미와도(알밉-+아도) "알미워도"

(96)과 (97)은 'ㅂ' 변칙 용언들을 음절 수와 어간말 모음별로 분류한 것이다. (96)은 1음절 어간이고 (97)은 다음절 어간인데, 어간말 모음이 (96)a는 'ㅣ'류 모

음, (96)b는 'ㄱ'류 모음, (96)c는 'ㄴ'인 경우이고, (97)a, b, c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예를 보면, 항상 'ㅂ' 변칙 용언들 뒤에는 'ㄱ'류 모음이 연결됨을 알 수 있다.

3.2.2. 'ㄱ'류 어미의 연결

용언의 어간에 'ㄱ'류 어미가 연결되는 것은 어간말 모음이 'ㄱ, ㅋ, ㆁ, ㄷ, ㅌ, ㄱ, ㆁ, ㄷ, ㅌ, ㄱ, ㆁ'일 때와 'ㅂ' 변칙 용언 중의 일부이다. 이 순서대로 용례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98) a. 개어도(개+어도) "개어도(疊, 濟)"
 b. 거러도(걸+어도) "걸어도(掛)"
 c. 깨어도(깨+어도) "깨(<찌)어도(醒)"
 d. 놀레어도(놀래+어도) "놀라도"
 e. 매어도(매+어도) "매어도(載)"
 f. 설레어도(설래+어도) "설레어도"
 g. 왜어도(왜+어도) "외쳐도"

(98)은 어간말 모음이 'ㄱ, ㅋ, ㆁ, ㄷ, ㅌ'인 용언 뒤에 'ㄱ'계 어미가 통합된 예들이다. 이 예들을 보면 어간말의 'ㄱ, ㅋ, ㆁ, ㄷ, ㅌ' 뒤에는 항상 'ㄱ'계 어미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9) a. 꿰도(꾸+어도) "꿰도", 주서도(줏+어도) "주워도"
 b. 버무러도(버물+어도) "더러워져도", 서투러도(서물+어도) "서물러도", 구무러도(구물+어도) "그물어도(勝)", 두무러도(두물+어도) "드물어도", 이우러도(이울+어도) "이울어도"

(99)는 어간말 모음이 'ㄷ'인 예들로, (99)a는 1음절 어간, (99)b는 다음절 어간의 예들이다. 위의 예를 보면, 1음절 'ㄷ' 어간의 경우에는 항상 'ㄱ'계 어미가 연결되고, 2음절 'ㄷ' 어간의 경우에는 매음절 'ㄷ' 어간일 때 'ㄱ'계 어미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췌어도(췌+어도) "췌어도"

(101) 뛰어도(뛰+어도) "뛰어도"

(100)과 (101)은 어간말 모음이 'ㅌ, ㅊ'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항상 'ㄱ'계 어미

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 (102) a. 씨도(쓰+어도) “씨도(糞)”, 글거도(글+어도) “글어도”
 b. 더드머도(더듬+어도) “더듬어도(納)”, 불러도(불르+어도) “불러도(飽)”, 끌러도(클르+어도) “끌러도”, 지퍼도(지프+어도) “깊어도”

(102)는 어간말 모음이 ‘ㅡ’인 예들로, (102)a는 1음절 어간, (102)b는 다음절 어간이다. 이 예들을 보면, 어간말 모음이 ‘ㅡ’일 때 그 앞의 모음이 ‘ㄱ’류 모음이면 항상 ‘ㄱ’계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103) a. 기여도(기+어도) “기어도”, 비서도(빗+어도) “빗어도(櫛)”
 b. 다쳐도(다치+어도) “다쳐도”, 매겨도(매기+어도) “매겨도”, 야려도(야리+어도) “야려도”, 건져도(건지+어도) “건져도”, 땡겨도(땡기+어도) “다녀도”, 여려도(여리+어도) “여려도”, 예피도(예피+어도) “워어도”, 구려도(구리+어도) “구려도”, 웨쳐도(웨치+어도) “외쳐도”, 뒤져도(뒤지+어도) “뒤져도”, 그쳐도(그치+어도) “그쳐도”, 이겨도(이기+어도) “이겨도”, 숨저도(숨지+어도) “삼켜도”, 으셔도(으시+어도) “야수어도”
 c. 거치려도(거칠+어도) “거칠어도”, 계시거도(계식+어도) “야무지지 못해도”

(103)은 어간말 모음이 ‘ㅣ’이고 ‘ㄱ’계 어미가 연결되는 예들이다. (103)a는 1음절 어간, (103)b, c는 다음절 어간인데, 이 예들을 보면, 1음절 어간일 때는 항상 ‘ㄱ’이 연결되고, 다음절 어간일 때는 개음절 어간이거나 ‘ㄱ’류 모음+폐음절 어간일 때 ‘ㄱ’계 어미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4) 햅여도(햅+어도) “햅여도”

(104)는 ‘햅’인데, 다른 ‘, ’ 어간과는 달리 ‘ㄱ’계 어미가 통합된다. 모음 조화의 예외라고 할 것이다.

- (105) a. 더워도(땀+어도) “더워도(暑)”
 b. 추워도(춡+어도) “추워도”, 쪼도(쪼+어도) “기워도(縫)”, 구워도(굽+어도) “구워도(炙)”

(105)는 ‘ㅁ’ 변칙 용언들인데, 1음절 어간이고 모두 ‘ㄷ’류 모음 어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3.2.1.의 (96)a에서 제시된 ‘고와도’가 1음절 ‘ㄷ’류 모음 어간이라는 점과, ‘괘와도, 쉬와도’의 어간이 문헌형의 ‘괘-, 험-’과 대응되기 때문에 이 두 예의 모음이 *oj, *uj에 소급된다는 점에서, ‘ㅁ’ 변칙 용언들은 1음절의 ‘ㄷ’류 단모음 어간에는 ‘ㄷ’계 어미가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모음 변화와 모음 조화

형태소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산발적으로 모음이 변화한 예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모음 조화라는 관점에서 인접하는 음절의 모음과의 동화와 이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⁴⁷⁾

3.3.1. 동화

먼저, 인접하는 음절의 모음과 모음 부류가 같아진 동화의 예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 예들은 크게 ‘ㄷ’류 모음에서 ‘ㄷ’류 모음으로 바뀐 예들과 반대로 ‘ㄷ’류 모음에서 ‘ㄷ’류 모음으로 바뀐 예들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예들은 일반적인 음운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음 조화를 따르기 위하여 변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106) a. 강-답 “乾答”, 도-둑(<盜賊?) “도둑”, 불-쌍 “불쌍”
 b. 요-랑 “搖鈴”, 타-랑 “打令”, 호-랑 “號令”
 c. 도-붓-짐 “도붓짐(到付-)”, 목-숨 “목숨”, 봉-토 “封套”, 소-본 “掃墳”,
 손-보리(<부리) “손부리”, 오-노이 “오누이”, 붓-도갑 “붓두껍”, 백-
 중-날 “百中날”
 d. 생-완 “生員”
 e. 하근-것, 圖하간것 “여러 가지 물건”
 f. 공-초-새 “功致辭”

(106)은 ‘ㄷ’류 모음에서 ‘ㄷ’류 모음으로 바뀌었다고 추정되는 예들인데, 각각 현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ㄷ, ㄷ, ㅌ, ㄷ, ㅌ, ㅌ, ㅌ, ㅌ, ㅌ’에서 ‘ㄷ’류 모음으로 변한 예들이다.

- (107) a. 명-석(<綱席) “명석”, 스승 “스승(<師僧)”, 추잡-하-다 “醜雜하다”, 품

47) ‘洗濯’에서 변했다고 추정되는 ‘서답’이나, ‘懸視’에서 변했다고 추정되는 ‘관세’와 같은 예들은 모음 부류가 바뀌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채(-遮) “遮陽”

b. 위-터-ᄃ-다 “危殆하다”

c. 백-영-목 “白楊木”

d. 서-숙 “黍粟”, 먹대(<木?) “목대”, 부-주 “扶助”, 작-뒤 “작두(斫刀)”, 장-귀(<長鼓) “장구”, 장-뒤-칼 “粧刀칼”, 정-주-떡 “정柱木”, 지-축(<芝草) “지치”, 통-수(<洞簫) “통소”

위의 예들은 ‘ㅈ류 모음에서 ‘ㄱ류 모음으로 변했다고 추정되는 예들로, 각각 ‘ㅈ, ㅉ, ㅊ, ㅌ’에서 ‘ㄱ류 모음으로 바뀐 것이다.

3.3.2. 이화

여기에서는 모음 조화를 어기는 방향으로 변화를 경험한 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⁴⁸⁾ 3.3.1.에서와 마찬가지로 ‘ㅈ류 모음에서 ‘ㄱ류 모음으로 변화한 것과, 반대로 ‘ㄱ류 모음에서 ‘ㅈ류 모음으로 변화한 것, 그리고 ‘ㅈ류 혹은 ‘ㄱ류 모음에서 중립 모음 ‘ㅣ’로 변화한 것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08) a. 귀-창 “귀청(<귀청)”

b. 불-쏘시-게(<쑤시-) “불쏘시개”

c. 골-런 “卷煙”, 병-구-완 “病救援”

(108)은 ‘ㅈ류 모음에서 ‘ㅈ류 모음으로 변화한 예들로, 각각 현대 발음을 기준으로 ‘ㅈ, ㅉ, ㅊ, ㅌ’에서 변화한 것이다.

(109) a. 색-장(色掌) “色掌”, 강-경(<강+羹?) “간”, 초-승(<初生?) “초승(<초싱)”

b. 받-제 “받자”, 산-승(<沙蔞?) “더덕”, 조-캐 “조카(<族下?)”, 봉-덕 “封堂”

c. 옥-영-목 “玉洋木”, 장-역-ᄃ-다 “裝藥하다”

d. 대-우리(<대+보리) “귀리”, 삼-춘 “三寸”, 앵-두(<櫻桃) “앵두”, 환-두-상이 “環刀상이”

(109)는 ‘ㅈ류 모음에서 ‘ㅈ류 모음으로 바뀐 예들로, 각각 ‘ㅉ, ㅈ, ㅊ, ㅌ’에서 ‘ㅈ류 모음으로 변화한 것이다.

48)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110) 곡식 “穀食(<곡식, 곡식)”, 양-식 “糧食”, 양-주-머리(陽支-) “양지머리”, 장-식 “裝飾”
- (111) a. 가-지(<茄子) “가지”, 마고지(<馬掛子) “마고자”, 빈-지(<板子) “빈지”, 우방지(牛莠子) “우영”
 b. 배-치(<白菜) “배추”
 c. 동-티(<動土) “동티”, 수-기 “受苦”
 d. 산-디-왓(<旱稻-) “벼를 심은 밭”
 e. 상-뒤 “鄉徒”, 상-뒷-군(<喪徒) “상여꾼”
 f. 파-기 “破壞”
- (112) a. 상-치 “傷處”
 b. 돤-비(<豆腐) “두부”, 어귀(<於口?) “어귀”, 상-갱이(<昇降) “昇降이”

(110)~(112)는 중립 모음 ‘ㅣ’와 관계되는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110)은 ‘ㅣ’에서 ‘ㅣ’류 모음으로, (111)은 ‘ㅣ’류 모음에서 중립 모음으로, (112)는 ‘ㅣ’류 모음에서 중립 모음으로 변화한 예들이다.

4. 결론

4.1. 이 글의 목적은 제주 방언이 경험한 모음 조화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었다. 모음 조화를 ‘모음 연결에서 첫째 모음이 후속하는 모음들에 대한 결정소로 작용하는 일종의 순행 동화’라고 정의할 때, 현대 제주 방언은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하는 음절들의 모음들이 하나의 자질로 묶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모음 조화는 통시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4.2.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연결들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나누었다. 기본적으로 제주 방언의 모음 연결은 ‘-, ㅏ, ㅑ’를 한 계열로 하고, ‘ㅣ, ㅡ, ㅓ’를 다른 계열로 하여, 이 두 계열 중의 어느 한 계열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ㅣ’는 불투명한 중립 모음으로 뒤에 ‘ㅣ’류 모음들과 ‘ㅣ’류 모음들이 모두 올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어긋나는 예들, 즉 ‘ㅣ’류 모음들과 ‘ㅣ’류 모음들이 연결되는 예들은 어느 한 쪽 계열의 모음이 다른 계열의 모음에서 변화한 결과이거나, 형태소 경계가 삽입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 조화는 파생과 활용으로 나누어진다. 파생 접사는 모음 조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음 조화를 따르는 파생 접사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들이었다. 또한 파생 접사의 제1음절 모음

이 중부 방언과 계열이 다른 예들도 있는데, 이들은 기원적으로 'ㅈ'-류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활용에서의 'ㅈ'계 어미와 'ㅊ'계 어미가 연결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ㅂ' 변칙 용언은 본래의 1음절 'ㅈ'류 단모음 어간일 때는 'ㅈ'계 어미가 통합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ㅈ'가 통합된다.

② 어간말 모음이 'ㅈ, ㅊ, ㅊ, ㅊ, ㅊ'일 때는 'ㅈ'계 어미가 통합되고, 'ㅈ, ㅊ, ㅊ, ㅊ, ㅊ'일 때는 'ㅈ'계 어미가 통합된다.

③ 어간말 모음이 'ㅈ'일 때, 그것이 'ㅈ>ㅈ' 변화의 결과이면 'ㅈ'계 어미가 통합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 1음절 'ㅈ'어간일 때와 제2음절 이하 폐음절 'ㅈ'어간일 때는 'ㅈ'계 어미가 통합되고, ㉡ 제2음절이하 개음절 'ㅈ'어간일 때는 'ㅈ'계 어미가 통합된다.

④ 어간말 모음이 'ㅈ'일 때, 그것이 'ㅈ>ㅈ' 변화의 결과이면 'ㅈ'계 어미가 통합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ㅈ'계 어미가 통합된다.

⑤ 어간말 모음이 'ㅈ'일 때, 본래의 'ㅈ'류 모음 뒤의 폐음절에 놓이면 'ㅈ'계 어미가 통합되고, 그렇지 않으면 'ㅈ'계 어미가 통합된다.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음운들이 변화를 경험한 예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음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접하는 모음과 동화된 경우와, 이화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변화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4.3.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방언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당 방언형과 대응되는 문헌형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록 문헌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묵시적으로는 그러한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의 연구 결과와 같은 유형에 속하면 동일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예외도 있었다.

제주 방언의 모음 조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과학적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우리말의 어원 연구이지만,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방언형에 대한 어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제주 방언이 경험한 변화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서 그 대체적인 모습은 밝혀졌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정밀한 방언사 기술이 요망된다. 이 글에서 모음 조화를 다루면서 제기한 음운 변화 과정은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다. 셋째, 문헌어의 경우에 모음 조화의 붕괴와 성조의 붕괴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하는 점 역시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제주 방언이 이전 시기에도 현재처럼 초분절 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고동호(1995a),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고동호(1995b), 제주 방언의 음라우트 연구, 「언어학」 17: 3-24.
- 고동호(1996), 제주 방언의 유기음과 경음의 형성 과정, 「한글」 234: 163-189.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김방한(1964), 국어모음체계의 변동에 관한 고찰, 「동아문화」 2: 29-80.
- 김성규(1996), '드물'과 '듣글'의 공존,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84-96, 신구 문화사.
- 김완진(1957), 제주도방언의 일본어어사 차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 112-131.
- 김완진(1963),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63-99.
-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91-115.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127-139.
- 김주원(1988a), 나나이어의 모음조화, 「국어학」 17: 229-246.
- 김주원(1988b), 모음조화와 설측, 「언어학」 9-10: 29-43.
- 김주원(1989), 「만주 통구스제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주원(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33-56.
-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차균(1984a), 15세기 국어의 음운체계(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11.2: 5-45.
- 김차균(1984b), 15세기 국어의 음운체계(2), 「언어」 5: 57-94.
- 김차균(1988), 「나랏말의 소리」, 태학사.
- 김차균(1993), 「우리말의 음운」, 태학사.
- 김차균(1995), 혀 오그림과 우리말 흘소리 어울림의 어제와 오늘, 「한글」 229: 21-79.
- 도수희(1964), 모음조화 연구, 「어문연구」 4,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 도수희(1970), 모음조화의 오산문제, 「국어국문학」 49-50: 105-124.
- 박종희(1983), 「국어음운론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 박종희(1994), 중립모음 'ㅣ'의 본질과 모음조화, 「우리말연구의 썬터」: 134-153, 문경출판사.
- 배주채(1991),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373-398, 민음사.
-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백인(1959), 만주어 모음조화 소고, 『문리대학보』 7.2: 43-51.
- 성백인(1968), 만주어 모음조화, 『한글』 141: 96-107.
-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향근(1993), 튀르크 제어의 모음조화에 대한 한 고찰, 『한글』 221: 187-207.
- 양정호(1991), 『중세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105,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이근규(1986), 『중세국어 모음조화의 연구』, 창학사.
- 이기문(1968),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377-389, 율유문화사.
- 이기문(1971a), 모음조화의 이론, 『어학연구』 7-2: 29-36.
- 이기문(1971b), 어원 수재,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이기문(1991: 67-74)에 재수록.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오’에 관련된 몇 문제, 『이승녕선생 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83-195, 탑출판사.
-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73: 1-14.
- 이승녕(1949), 모음조화 연구, 『진단학보』 16: 7-109.
- 이승녕(1957/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97-119.
- 정도상(1996), 『관·꺾공통조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음운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제주방언연구회(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 최명옥(1976), 서남 경남방언의 부사화 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61-82.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92), 경상북도의 언어지리학, 『진단학보』 73: 139-163.
- 최명옥(1993), 경북방언의 모음조화,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신연구』: 709-726, 문학과 지성사.
- 최명옥(1995), ‘X]Jvst어Y’의 음운론, 『진단학보』 79: 167-187.
- 최권승(1997), 용언 활용의 비생성적 성격과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 현상, 『국어학연구의 새 지평』: 1207-1257, 태학사.
- 한영균(1990), 모음조화의 붕괴와 ‘.’의 제1단계 변화, 『국어학』 20: 113-136.

- 한영균(1994), 「후기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웅(1985),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 제일집 자료편」, 정연사.
- 현평효(1964), 제주도 방언 'ㅁ'[t]음에 대하여, 「국문학보」 2, 현평효(1985:311- 354)에 재수록.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服部四郎(1975), 母音調和と中期朝鮮語の母音體系, 「言語の科學」 6: 1-22.
- 服部四郎(1978), アルタイ諸言語・朝鮮語・日本語の母音調和, 「月刊 言語」 7:4: 80-88.
- 小倉進平(1929), 附論: 母音調和, 「郷歌及び史蹟の研究」: 507-555, 京城帝國大學法文學府紀要第一.
- Aoki, J. (1968), Towards a typology of vowel harmony, *IJAL* 34: 142-145.
- Hall, B. L. & R. M. R. Hall(1980), Nez Perce Vowel Harmony, in Vago (ed.) (1980: 201-236).
- Hayata, T. (1975), A Note on Vowel Harmony in Middle Korean, *Gengo Kenkyu* 68: 104-108.
- Hulst, H. van der and J. van de Weijer (1995), Vowel Harmony,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495-534, ed. J. A. Goldsmith, Basil Blackwell.
- Lee, Sang-Oak (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20.4: 417-451.
- Poppe, N. N. (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Svantesson, J-O. (1985), Vowel Harmony Shift in Mongolian, *Lingua* 67: 283-327.
- Vago, R. M. (ed.)(1980), *Issues in Vowel Harmony, Proceedings of the CUNY Linguistic Conference on Vowel Harmony, 14th May 1977*, Amsterdam: John Benjamins B. V.
- Zimmer, K. (1967), A Note on Vowel Harmony,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33: 166-177.

< Abstract >

Vowel harmony in the Cheju dialect

Ko, Dong-h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at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change process of vowel harmony which the Cheju dialect experienced. Vowel harmony is taken as a type of progressive assimilation, in which the first vowel in a sequence constitutes the conditioning factor for subsequent vowels. However, vowels in the adjacent syllables either morpheme-internally or across morpheme boundary in the current Cheju dialect cannot be bound by a single featur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look at vowel harmony in the Cheju dialect diachronically.

We distinguished various vowel sequences morpheme-internally to look at morpheme-internal vowel harmony in the Cheju dialect. Vowels in the Cheju dialect are basically divided into two groups: /a, ɔ, o/ or /ʌ, u, u/. A morpheme chooses vowels in the same group. /i/ is an opaque neutral vowel. It can be followed by either /a/-group vowels or /ʌ/-group vowels. Exceptions to this distinction, in which vowels from the two groups are mixed in a morpheme, are explained as a result of either vowel change (a vowel which belonged to one group changed to the other group) or inclusion of morpheme boundary.

Vowel harmony across morpheme boundary can be divided into derivational and inflectional. Though derivational suffixes generally do not follow vowel harmony rules, some of them (mostly beginning with vowels) do. There are derivational suffixes whose vowel in the first syllabl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entral district dialect. It is assumed that originally they might have begun with /a/-group vowels.

Vowel harmony of the inflectional suffixes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irregular verbs take /a/-group suffixes except when they originate from an /ʌ/ monophthong stem, in which case they take /ʌ/-group suffixes.

(2) /a/-group suffixes are taken when the stem-final vowel is one of /a, o, wa, ɔ, jɔ/, /ʌ/-group suffixes when the stem-final vowel is one of /ɛ, ʌ, e, wɛ, we, wi/.

(3) /a/-group suffixes are taken when the stem-final vowel is /u/ is either the result of ɔ>w>u change or in the non-initial open syllable. /ʌ/-group suffixes are taken when the stem is either mono-syllabic with /u/ or it has /u/ in the non-initial closed syllable.

(4) /a/-group suffixes are taken when the stem-final /w/ resulted from ɔ>w change. Verbs with stem-final /w/ takes /a/-group suffixes, if /w/ came from ɔ>w change. Otherwise, they take /ʌ/ group suffixes.

(5) Stem-final /i/ verbs take /a/-group suffixes when /i/ is in the non-initial closed syllable which is preceded by an original /a/-group vowel. Otherwise, they take /ʌ/-group suffixes.

It is also observed that phonemes sharing morpheme boundary occasionally experienced changes. They can be explained as follows in terms of vowel harmony: they are either assimilated to adjacent vowels or dissimilized.